第 3 號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

圓 周

'78. 2.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

激 勵 辭

所長 趙 琮 鉉

萬物이 生命力으로 充満되는 새 봄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会誌를 発行함에 있어 祝賀를 드림과 同時에 紙面을 通하여나마 激励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國会速記士養成所는 10回에 이르러 卒業生을 배출하였읍니다마는 현재 養成所를 거쳐 나간 同門 여러분들이、모두 充実하게 그리고 意慾的으로 여러 分野에서 生業에 従事하며 希望에 찬 未来像을 建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10年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엣말이 빛을 잃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世代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社会의 前進隊列에 앞장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결잡이가 되겠다는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実践에 옮김으로서 國家発展에 寄与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走馬加鞭格으로 몇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우리 養成所의 所訓이기도 한 忍耐必成의 精神으로 自己의 目的하는 바를 達成하기 위해 不断히 努力하고 邁進해 나아가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은 높은 뜻을 向하여 初志一貫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今年은 지난해 100億弗 輸出目標를 무난히 達成하고 劃期的인 國力의 伸張을 이루고자 하는 経済開発第4次5個年計劃의 第2次年度로서 國家的으로 과거 어느때보다도 많이 各 分野에 걸쳐 有能한

人材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 젊은이에게 보다 많은 奉仕의 機会를 提供하고 있는 即 여러분들이 実力을 充分히 発揮해 볼 수 있는 좋은 時期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自身의 潜在力을 蓄積할 것이며 一時的인 成就에 満足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恒常 배우는 姿勢와 実力을 갈고 닦는 健実한 生活方式을 知性人답게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언제나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習得해나가는 工夫하는 姿勢를 갖도록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安易한 生活態度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各者 処한 位置에서 意慾에 찬 生活을 開拓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國家와 社会発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以上 몇가지 参考될 만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実践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実践하는 것이 더 重要한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実践하는 사람이 됩시다.

끝으로 우리 國会速記士養成所 同門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養成所의 発展과 会員 相互間의 親睦을 위하여 協同하고 相扶相助하여 주시기 바라며 同門会의 無窮한 発展과 会員 여러분의 건투를 빌어 마지 않읍니다.

(國会事務処 議事局長)

새해 새출발

會長 朴 順 必

雄志를 품고 힘차게 또다시 스타트라인을 出發하는 駿馬의 해 戊午年 새해가 밝았읍니다.

74年末에 胎動한 우리 同門会도 이제 어느덧 네살둥이가 되었읍니다. 처음 우리 同門会가 会員 여러분과 任員들의 刻苦의 努力과 熱誠的인 参与를 밑바탕으로 世上에 나왔을때 그 기쁨은 실로 感激스러운 것이었읍니다.

그 후 네해동안 会員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精誠어린 보살핌으로 이렇게 成長해온 것을 생각할때 会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또한 物心両面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激励해 주신 고문선생님들, 大韓速記協会 그리고 養成所 先生님들께 고개숙여 感謝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声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同門会는 많은 成長을 했읍니다. 젊은 会員들이 大幅 入会하였고 여러 会員들이 社会 各 方面으로 많이 進出하여 우리 同門会의 새로운 면모를 이루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会員 모두가 젊고 참신한 人材들로서 앞날이 기대되는 会員들임을 생각할때 同門会의 成長 発展의 可能性은 실로 無限하다 하겠읍니다.

「成長」하게 되면 요즘엔 너무나 物量的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同門会는 物量的인 것보다

는 좀더 긴 眼目으로 未来를 내다보며 自己自身의 内的充実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本同門会의 永久한 発展을 위하여 서로 親睦을 도모하고 先後輩間에 뜻있는 対話를 나눠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리란 생각합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면 된다」는 強한 信念으로 우리의 同門会를 始作하였고 어떤 難関이나 陣痛을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니었읍니다. 처음 同門会가 構成될때부터 好事多魔格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되었으나 그때마다 会員 여러분들의 激励와 적극적인 参与가 그 難関을 克服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면 된다」라는 우리의 信念에 비하면 그것들은 한낱 물거품이 아니겠읍니까?

우리 모두가 参与意識과 協同精神을 좀 더 発揮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들은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実利만을 찾기에는 너무도 젊으며 또 아직 體験해 보지 못한 次元이 다른 世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새해 戊午年에 또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우리 同門会에 배전의 協助와 보살핌으로 새해 出発의 原動力이 되어 주시기 바라마지 않읍니다.

끝으로 会員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祈願하여 마지 않읍니다.

내일로의 行進

前会長 河良培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덧 1年이 지났고 또 戊午号가 고동을 울리며 大海를 향해 出帆한지도 한달餘가 되었읍니다.

먼저 今年 한해동안 本会를 이끌고 일을 해나갈 重責을 맡은 새 任員陣에게 祝賀를 하며 同門会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1年을 돌아보며 同門会成長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 볼때 그래도 本会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指導鞭撻과 여러 会員들의 協助에 힘입어 우리 任員陣은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몇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읍니다. 이 글을 빌어서 同門会에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의 声援에 마음으로 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激励와 会員여러분의 정성어린 参与가 계속되어 이해와 사랑으로 本会가 뭉쳐져서 마치 논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는 農夫의 労苦에서 한알의 씨앗이 열배 백배의 収穫을 거두듯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世態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젊은이 만은 正義에 따라 적어도 최소한의 떳떳함을 좇아서 행동하며 더우기 젊은이한테는 無限한 可能性이 잠재되어 있읍니다. 이 可能性에 点火시켜 날개를 펴는 것이 젊은이의 指向할 바 眞面目이라

할 것입니다.

일찌기 「시저」는 로마의 태양이 되고싶다고 했거니와 꿈이 없는 젊은이는 그야말로 불꺼진 港口와 같아서 초라할 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겨우내 마른가지에 새움이 트고 개나리 진달래가 찬란한 봄을 山野에 알릴텐데 우리 모두 어깨를 펴고 가슴속에 한아름 꿈을 안고 내일로의 힘찬 行進을 해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会員여러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하며 健勝을 기원합니다.

× × × × ×

＊〈任員陣〉

고문 : 조 종 현 (소장) 김 진 기 (부소장)
정 원 도 (전교무주임) 이 동 일 (교무주임)

회장 : 박 순 필　　부회장 : 김 동 수　김 학 순

총무 : 이 승 철　　섭 외 : 권 영 찬

재정 : 최 길 주

감사 : 김 경 중　김 은 주

간사 : 고 용 번　오 준 근　박 정 호
김 은 주　정 대 길　김 종 철
박 기 만　김 주 성　이 영 화
김 성 연

不動產의 二重売渡人의 刑事責任

朴 正 鎬 (3期)

一. 序

売買에 의하여 不動産을 他人에게 讓渡하는 데 있어서 아직 登記上의 所有名義가 讓渡人에게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不動産을 다시 第3者에게 売却하여 이를 登記하였을 경우에 讓渡人에게는 어떠한 刑事責任이 있으며 또한 第2의 買受人에게는 어떠한 刑事上의 責任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物權変動의 効力発生에 있어서 이른바 意思主義를 採用하였던 旧民法下에서는 売買契約이 성립함과 동시에 不動産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転하게 되고 다만 登記上의 所有名義가 売渡人에게 있는 때에는 売渡人은 他人의 不動産을 保管하는 者이므로 不動産의 二重売買는 横領罪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物權変動의 効力発生에 있어서 形式主義를 採用하게 된 現行民法下에서는 登記는 단순히 第3者에 대한 対抗要件이 아니고 物權変動의 成立(効力発生)要件이므로 売買契約이 成立하였으나 未登記 중이면 당해 不動産은 売渡人의 所有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形式主義下에서는 不動産의 二重売買는 横領罪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意思主義를 採用한 旧民法下에서의 登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対抗하기 위한 対抗要件이고 形式主義를 採用한

現行民法下에서의 登記는 상대방에게는 물론 当事者間에도 그 物權変動効力을 발생시키기 위한 成立要件으로서 登記를 하지 않으면 当事者間에는 물론 第3者에 대해서도 物權変動의 効力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物權変動의 時期가 명확하고 物權変動의 効果가 획일적인 現行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現行民法下에서의 不動産의 二重売買는 어떠한 刑事責任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不動産売買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二. 二重売渡人의 刑事責任

1. 契約金만을 交付받은 경우

不動産売買契約을 하고 売渡人이 契約金만을 交付받은 후 이를 다시 第3者에게 売渡할 경우에는 売渡人과 第1의 買受人은 民法上의 売買에 관한 규정 (565조)에 의하여 相互 契約金의 倍額의 償還 또는 契約金의 포기 등에 의하여 売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売渡人은 第1의 買収人에게 同不動産을 売渡할 法的 拘束은 없다. 따라서 売渡人이 第1의 買受人에게 契約解除의 通告없이 한 二重売買行為는 단순히 民法上의 債務不履行의 責任을 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단계에서 売渡人의 二重売買에 대한 刑事責任은 인정되지 않는다.

2. 契約金외에 中途金까지 交付받은 경우

中途金까지 支給하였으면 이미 契約履行의 着手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契約金의 交付段階에서와 같이 売渡人과 第1의 買受人間의 契約의 解除는 다른 契約違反事実이 없는 한 法律上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売渡人은 다시는 同不動産을 第2의 買受者에게 売渡할 수 없는 法的 拘束을 받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 売渡人은 第1의 買受人이 残代金을 支給하기만 하면 그에게 登記移転権을 하여 所有権을 取得할 수 있도록 登記節次를 이행할 法的 義務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第2의 買受人에게 売渡하였을 때는 刑事上의 責任을 져야한다.

이 경우의 刑事上 責任은 代金을 全額支給받은 경우와 거의 같다. (後述 3 参照)

이와 반대되는 意見으로서 売渡人과 買受人은 이 경우에 함부로 解除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은 단지 契約 当事者間의 債権関係에 불과한 것으로서 売渡人은 여전히 그 所有権의 내용인 処分権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刑事上 責任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判例도 이 경우에 二重売渡人에게 刑事上의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契約当事者間에 法以前의 원만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二重売渡人은 刑事上의 責任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

3. 代金全額을 支給받은 경우

(1) 序

不動産所有者인 売渡人이 買受人과 不動産의 売買契約을 체결

하고 그 代金全額을 受領한 후 다시 그 不動産을 第2의 買受人에게 売渡하여 그의 名義로 登記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現行民法下에서는 売渡人이 第1의 買受人에게 所有権移転登記를 하지 않는 한 形式主義에 의하여 所有権의 移転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所有権의 侵害는 있을 수 없고 오직 債権의 侵害에만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 債権의 侵害가 刑事上의 詐欺罪를 구성하느냐 背任罪를 구성하느냐가 문제된다.

(2) 詐欺罪의 成立与否

詐欺罪는 他人을 欺罔하여 被欺罔者의 瑕疵있는 処分行為에 의하여 그로부터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또는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함으로써 成立하는 犯罪이다.

따라서 詐欺罪의 成立에는 欺罔行為가 前提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売渡人이 第1의 買受人에게 登記移転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詐欺罪의 成立与否에 있어서 売渡人은 자기의 완전한 所有権을 移転한다는 意思였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므로 (처음부터 金銭騙取의 目的은 없었음) 詐欺罪의 手段인 欺罔行為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同不動産의 二重売渡人의 行為는 詐欺罪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3) 背任罪의 成立与否

背任罪는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

는 行為로써 財產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함으로써 成立하는 犯罪이다.

背任罪의 構成要件으로서 主觀的으로는 자기 또는 第3者에게 利益을 領得시키겠다는 不法領得의 意思와 客觀的으로는 主體로서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背任行為를 하여 本人에게 財產上의 損害를 줄 것등을 요한다.

二重売渡人에게 背任罪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売渡人은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의 立場에 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所有権은 아직 売渡人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信義誠実의 原則上 第1의 買受人으로부터 代金全額을 支給받고 다만 登記移転義務만이 남았을 때는 買受人이 完全한 所有権을 取得할 수 있도록 登記를 移転해 줄 履行義務가 있으므로 同不動産에 관한 財產上의 事務는 단순히 자기 事務라고는 볼 수 없고 登記権利者인 第1의 買受人의 所有権取得을 위한 事務의 일부를 이루는 즉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의 地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二重売渡人을 第1의 買受人과의 売買契約의 결과에 의하여 負担하는 他人의 事務인 登記協力任務의 處理를 하는 者로서 그 任務에 違背하여 二重의 売買行為를 함으로써 第1의 買受人에게 財產上의 損害를 입히고 利益을 取得하였으므로 背任罪의 責任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三. 金銭騙取目的의 二重売渡人의 刑事責任

売渡人이 처음으로 買受人에게 所有権을 移転할 意思없이 단

순히 金錢을 騙取할 目的으로 買受人과의 売買契約을 締結하고 代金을 領収한 후 다시 第2의 買受人에게 売却한 경우에도 詐欺罪인가 背任罪인가가 문제된다. 金錢騙取目的의 二重売買行為는 詐欺罪와 背任罪의 構成要素를 모두 充足하는 것처럼 보이나 背任罪의 構成要件으로서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기초가 되는 信任関係는 当事者의 진실한 意思에 基할 것이 요구되며 瑕疵있는 意思에 基할 경우에는 背任罪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不法領得의 意思로 売買를 가장하여 買受人을 欺罔하고 그로 인하여 金錢을 騙取한 売渡人의 行為는 詐欺罪를 구성한다.

四. 第2買受人의 刑事責任

不動産物権의 得失変更은 形式主義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그 効力이 発生되기 때문에 第1의 買受人에게 移転登記가 없는 동안에 이를 二重으로 売渡하더라도 이는 贓物이 아니다. 따라서 第2의 買受人은 善意이건 悪意이건을 不問하고 例外없이 刑事責任이 없다고 하는 일부의 見解가 있다.

그러나 第2의 買受人의 教唆 幇助에 의하여 또는 第2의 買受人과 共謀하여 売渡人이 二重売買를 한 경우조차도 売渡人에 관해서는 아무런 犯罪도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은 法適用의 衡平을 잃은 것으로서 심히 不当한 것이다. 따라서 売渡人이 背任罪의 責任을 지는 때에는 第2의 買受人도 具體的 사정에 따라 背任罪의 教唆犯, 従犯, 또는 共同正犯으로서의 罪責을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1. 詐欺罪 :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이하의 罰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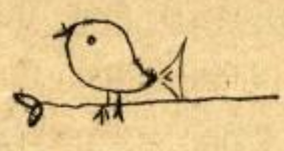
2. 背任罪 :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萬원 이하의 罰金

× × × × ×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다 하도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어도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갈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만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곧 참된 진리를 바로 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法句經>



口腔疾患과 衛生

姜 守 一 (養成所 庶務)

치아 (齒牙) 의 주기능은 저작이며 건강한 치아는 5福中의 하나라고 말한다. 입을 벌리면 빨간 입술을 통하여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흰 이 (齒), 이것이야 말로 자연의 미 (美) 그것이다. 황금색 또는 백금색으로 장식된 이는 그것이 설사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부자연한 것이며 또한 품성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성인은 상악 (上顎) 과 하악 (下顎) 에 자연의 흰 이를 28~32개 어린이는 20개를 가지고 있다 성인의 경우는 지치 (智齒) (사랑니) 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여 그 수가 일정하지않다. 치아는 악골 (顎骨) 속에 뿌리를 박고 뼈 속에 있는 부분을 치근 (齒根) 이라 한다. 치근은 앞니 (前齒) 에서는 한개 작은 어금니 (小臼齒) 에서도 대개 한개다. 큰 어금니에서는 둘 혹은 세개로 갈리고 있으며 이는 이것을 성인의 이와 어린이의 이 즉 영구치 (永久齒) 와 유치 (乳齒) 의 두종류로 대별 한다 유치는 자그마하고 귀여운 감이 있는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연약한 감이 있고 흰색속에 약간 푸른 빛이 깃들어 있다. 영구치는 희다고 하여도 약간 노란 빛이 감도는 따뜻한 맛을 풍기는 생생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萬病의 원인이 입에 있다고 하여 입안으로 부터 직접간접 (直接間接) 으로 신체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 70%나 된다는 것은 의학계의 수 많

은 실험의 결과 긍정 하는 바이다. 그럼 간단히 구강질환에 대한 것 몇가지를 알아보자. 20세전에 가장 많이 빈발하는 치아우식증은 치아의 굳은조직 범랑질 (琺瑯質), 상아질 (象牙質), 백토질 (白土質) 가운데 섞여 있는 광음질이 녹아서 조직이 만만해지고 무너지는 병이며 치아우식증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여 또한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오늘날까지 아직 해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화학세균학설에 의하면 치아와 치아사이 잇볼이 붙는곳 어금니에 있어서는 그 씹는 교합면 (皎合面) 의 움푹들어간 곳 즉 어떤 곳이든지 음식물의 잔편 (殘片) 이 끼우기 쉬운 곳에 음식물 특히 탄수화물이 끼어서 입안에 있는 충치의 세균이 작용하여 발효 (醱酵) 를 일으켜 여러가지 산이 생긴다 치수염 (齒髓炎) 은 충치로 인하여 치아가 손상되어 치수 (齒髓) 가 노출되고 여기에 세균의 감염을 받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치근막염 (齒根膜염) 은 충치로 인한 치수염 (齒髓炎) 을 거쳐서 생기는 것과 치아에 외상 (外傷) 을 받고 일으키는 외상성치근막염 (外傷性齒根膜炎) 혹은 金冠 (금니) 의 가장자리에 음식물이 들어가 끼어서 생기는 수도 있고 치은염 (齒齦炎) (잇몸의 염증) 이 진행되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원인을 들수 있다. 노년기에 치아상실이 제일 많은 치아주위조직염 (齒牙周囲組織炎) 은 충치에서 치수염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뿌리 끝을 통하여 치아주위조직 (잇몸, 백토질, 치근막, 치조골) 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와 치주농루 (齒槽膿漏) 또는 지치난생증 (智齒難生症) 인 때에는 잇몸에서 염증이 생겨 이것

이 점차로 확대되어 생기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치근막염 (齒根膜炎) 이 확대된 것을 말한다.

치조농루증 (齒槽膿漏症) 은 치아의 주위에 있는 조직의 만성질환으로서 치아주위조직염 (齒牙周圍組織炎) 의 일종이며 결코 치아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잇몸 조직의 병이다. 따라서 충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밖에 우리 입안에는 많은 병이 도사리고 있다.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 칫솔질의 3.3.3원칙 (하루세번 식후3분이내 3분이상) 을 숙지하여 실천하기 바라고 구강내 질환은 위험하면서도 그예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온수로 양치질을 하며 특히 임신중이나 젖먹이가 있을 때에는 어머니는 칼슘 인 (燐) 비타민등 치아형성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유의하여 섭취하여야 할것이다. 치아의 질병은 되도록 조속한 시일에 치료함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이롭고 치유에도 빠른것이다. 초기 충치같은 것은 자신이 대개는 모르게 되며 음식물이 끼든지 찬물이나 더운물을 마실 때 감각이 있으며 치료는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곧 치료만 하면 무방하다. 치조농루증은 절대 만성병이니 만큼 초기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중 자각적으로 그 증세를 알게 될 때에는 이미 치료의 효과를 얻기가 곤란 하므로 구강내 질환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1년에 2회 내지 3회이상 보건진단을 받되 가족이 함께 전문의의 세밀한 진단에 의하여 적절처치를 해야 할것이다. 조속한 진단과 치료는 가장 완전한 치아질환의 예방인 것이다.

××××××××××××××××××××××××××××××××××
×　　　　　　　　　　　　　　　　　　　　×
人生의 다섯개 선물
×　　　　　　　　　　　　　　　　　　　　×
×××××××××××××××××××××原作 : Mark Twain ××××

번역 : 趙 永 昌 (3期)

1

人生의 初期에 착한 妖精이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했다.

「여기에 선물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조심해서 잘 고르세요.

아! 잘 골라요! 왜냐하면 그중에서 하나만이 價値가 있으니까요」

선물은 다섯개였다. 名譽와 사랑과 富와 快樂과 죽음이었다.

그 어린 妖精은 간절히 말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快樂을 選択했다. 그는 세상에 나와서 그 어린 妖精이 즐기는 快樂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그 快樂은 잠시뿐인 失望的이고 虛無하고 空虛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떠나면서 그를 놀려댔다. 드디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몇년을 나는 浪費를 해왔는데 만일 다시한번 고를 수 있다면 현명한 選択을 하겠는데………」

2

妖精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다.

「네개의 선물이 남았어요 다시한번 고르세요 : 아! 기억해

두세요 — 時間은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개만 값진것이에요.

그 사람은 오랜 생각끝에 사랑을 골랐다. 그러나 그는 妖精의 눈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은 보지 못했다.

몇年이 지난 후 그는 빈집의 관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은 내곁을 떠나가 버렸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그녀가 여기 누워 있군 쓸쓸함만이 나를 휩쓸어 갔지 수많은 슬픔의 時間을 支払하고 얻은 幸福의 時間마다 믿지 못할 장사꾼인 사랑은 나를 속여 왔어. 정말 진심으로 그를 詛呪해」

3

「다시 고르세요」

妖精이 말했다.

「세월은 당신에게 智慧를 가르쳐 줬어요 정말 그랬음이 틀림없어요 세개의 선물이 남았어요. 하나만 價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고르세요」

그 사람은 오래 熟考를 하고 名誉를 골랐다. 妖精은 한숨을 쉬면서 가 버렸다.

몇年이 지났고 그녀가 다시 와서 夕陽에 생각에 잠겨 외롭게 앉아 있는 그 사람 뒤에 와 섰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의 이름이 세상을 가득 채웠고 나의 칭찬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서 얼마 동안은 만족을 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짧은 것이었어!

그리고는 猜忌 誹謗 中傷 憎悪 다음에는 迫害가 차례차례 왔지 그리고 終末의 始作이라고 할 수 있는 嘲弄을 받았고 그리고 名誉의 葬礼式이라 할 수 있는 同情이 마지막으로 왔어.

아! 한창 때에는 中傷과 誹謗의 対像이요. 시들어질 때는 軽蔑과 同情거리인 名誉의 悲痛함과 가련함이여!

4

「다시한번 고르세요」

妖情의 목소리 였다.

「두개의 선물이 남았어요 그러나 失望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값진 선물은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이곳에 있어요」

「富— 그것은 힘이지! 참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고!」

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자. 결국 人生은 살아볼 만한거야 돈을 마음껏 쓰면서 멋있게 살아 봐야지 나를 嘲弄했고 軽蔑했던 사람들이 내앞에서 슬슬 기겠지. 그러면 나는 굶주렸던 나의 가슴을 그들의 羨望으로 가득 채울테야.

나는 모든 奢侈와 모든 즐거움과 모든 精神의 恍惚함 그리고 人間이 貴重하게 여기는 肉體의 満足을 누릴테야 服従 尊敬 恭敬 그리고 崇拝도 사야지 앞으로는 人生의 값싼 모든 好意와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의 市場도 갖출 수 있을거야

나는 지금까지 많은 時間을 잃어 버리면서도 잘못 골라만 왔지만 그것은 잊어 버리기로 하지 그때는 無識했고 겉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를수 밖에 없었어」

3年이라는 짧은 세월이 흘러 갔고 그 男子가 초라한 다락방에

서 떨며 앉아 있는 날이 왔다. 그는 수척하게 야위었고 눈이 쑥 들어 갔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마른 빵껍질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가짜와 그럴듯한 거짓말 투성이 선물들! 모두 이름이 잘못 붙여졌어 그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다만 빌려 주는 것 뿐이야

快楽, 사랑, 名誉 그리고 富 그것들은 永続하는 実體인 苦痛 憂愁 羞恥 가난의 일시적인 仮面에 불과한 것들이야 妖精이 한 말이 정말 맞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중에서 価値가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단하나의 것 肉體를 虐待하는 苦痛과 마음을 좀먹는 羞恥와 슬픔을 꿈꾸지 않고 영원한 잠속에 잠기게 하는 귀엽고 달콤하고 상냥스러운 더할나위 없이 귀중한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른것들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초라한 것들인가를 이제야 알겠어 그것을 갖다 다오! 나는 이제 지쳤어 쉬고 싶어」

5

妖精이 선물중에서 네개를 가지고 다시 왔다. 그러나 그중에 죽음은 없었다.

「어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주어 버렸어요 그 어린아이는 無識했지만 나를 믿고 그를 위해 선물을 하나 골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위해 하나 골라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지요」라고 妖精이 말했다.

「아 나는 얼마나 가련한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 남았단 말이오……」 「당신이 받지 않았어도 될 늙은이라는 더러운 侮辱이에요」

※ 特別寄稿 ※

出 班 奏

楊 敵 在(서울민사지방법원)

공해괴물로 범벅이 된 서울의 지상밀에서 자주 옵산에 젖어들기 일수인 요사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람도 어설픈 중년의 초입이라 서기도 앉기도 어정쩡하다.

오기와 배착으로 괴이한 기량을 빌미삼아 어지간히 할 일 않고 생각없이 살아온 셈이다.

누구나 갖는 지난날들의 후회 — 좀더 사려깊는 청춘을 보냈더라면 명예와 억만금을 모았을 걸, 자신에게 좀더 충실했으면 사는 재미를 터득하며 지냈을텐데 하는 것들 — 는 덮어두는 것이 예의일 듯 싶다.

다만 그렇게 맞추지 못한 조각들이 그 세월 동안 마냥 흩어져 있었음을 요사이 좀 알아채고는 삽시간에 추어 채려 애쓰고 있는 나를 읽게 된다.

제길헐 철이 널 든 오랜 시간을 지내고 40고개에서야 만학의 지겨움에 힘겨워 하는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

어떻든 심승살은 반추시절에서 깨어나 왕방울 굴리고 용트림하면서 치솟는 離陸의 순간의 맛을 다시한번 여기 음미 해 보련다.

· 사는 것은 그런대로 벌 줄 알아서 살아가는 편이고 꽤 놀았

던 터이라 출길 줄 알고 끼 ― 술끼 바람끼 말―끼 방랑끼 사기끼 (?) 등 잡끼공부에 과락은 면했으니 앞으로 남은 사교끼에 보탬이 될터인즉 무엇이 그리우랴만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이 있다 .

그렇지 나는 너무 편하다는게다 . 없어서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맘이 있나 무슨 살얼음을 딛는 위험이 있나 날이면 날마다 크건· 작건 黃金 몇 돈중에 매달려 트랙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 너무 편하지 않은가 .

그래서 나는 게을러졌다 . 약간 트랙을 더 돌아도 그 금덩이이니 아예 걸어서 돌자 . 언제건 도는 것인데 뭘 .

그러다 그러다 어느 틈엔지 나의 마음이 양처럼 유약해져서 이 쳇바퀴를 벗어나면 찢어진 「 비닐하우스 」틈 사이로 내려진 찬서리에 얼어터진 풀잎처럼 무너져 버릴까 싶어 나의 발끝에는 궤도에 묶인 도르래가 달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다 .

무겁게 지겹게 묶인 바퀴에 또 지겹고 짜증스러워 바깥세상에 내한 동경으로 날을 보낸다 . 싫증으로 보내다가 벼르고 벼른 끝에 발치에 붙은 거머리 같은 차바퀴를 차버리고 새곳으로 옮겨본다 . 한 1년 남짓 이곳을 살펴보니 왕년에 손오공이 더듬고 간 다섯 기둥이 있는 곳이다 . 세상끝인 줄만 알았던 오공이 결국 부처님의 장중을 못 벗어난 것처럼 나도 그와같은 쓸불견으로 남아 있음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 .

넓고 밝은 , 그래서 흥미를 돋우어 줄 줄만 알았던 이곳에 온세

상을 설렵한 것인 줄 알았던 이곳에도 나를 소름끼치도록 유약하게 겁쟁이로 만드는 소도구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음을 볼 때 나는 다시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피기 시작한다. 자신을 극기하고 인생을 관조한·달관한 분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

인생이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말씀을 듣는다.

선을 좇는 것이 곧 삶이라는 말을 듣는다.

행위 그 자체에 생의 의미를 부여한 분을 기억한다.

도덕 윤리를 지고한 삶의 원칙이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의 말씀을 경청한다.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순리라는 편안한 말씀을 듣는다.

신는 죽었다고 외치는 무엄한 분의 결론도 주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말씀는 웬일인지 탐탁치가 않다.

어쩐지 그분들의 논리가 볏 오를 설산에 고향을 등지고 올라가서 외로이 무엇인가 찾으려다 죽어간 산해인 양 내쳐져 도시 주눅이 든 고독을 맛보는 느낌만으로 그치게 한다.

그늘이 설 땅이 아닌 곳에서 노다지를 캐려 헤맨 분들의 공농묘지같는·그 비문임을 알게 된다.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진 감상문 — 내가 거기서 무엇을 찾는단 말인가. 지혜일까. 사람이 지혜로우면 바른 양식으로 사리분별을 곧게 할 수 있게 한다. 사는 길은 비추는 빛인게다. 지혜는 사람의 뇌지를 키워 주는 영양소이므로 사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 도구인게다.

창조력일까. 창조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는 사람에게 매우 즐거운 만족을 준다. 그것들이 모여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의 利器 兇器를 망나니처럼 잔인하게 제조하고 있어서 인류의 멸망을 생각하게끔 불안을 안긴다. 이미 있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샅샅 알아내어 이용하는 것을 두고 창조라고 일컬으니 개발이란 용어가 타당치 않는가 하는 의구가 남는다.

순수한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은 이미 있는 자연법칙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도 인간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줌에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창조력은 우리에게 새롭게 일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어떤가.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청년는 異性의 눈빛 속의 사랑을 숨쉬며 성장한다. 어른은 아내의 애정 속에서, 남편의 자애 속에서 사랑을 뿌려가며 산다. 노인네는 끼리끼리 등을 긁어 주며 사랑을 확인하고 거개의 욕망이 사라진 신뢰로써 사랑을 마무리 짓는다. 그로써 죽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긴 우리가 죽음을 외면할 능력도 죽음의 세계도 모르는 터에 죽음을 따진다는 것이 모순이긴 하지만 어떻든 사랑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초능력으로써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는 인간의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며 행복의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인간의 창조능력이 얼마나 인류에게 공헌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서 행복의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사랑으로 명명하는 인간사 속에 살고 있으며 사랑의 신비를 느끼며 그것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믿는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지혜와 창조와 사랑의 합일된 결합체라고 믿는다.

나에겐 출생이 있었으므로 세상에 존재하고 사노라면 언젠가 죽음이 올 것임을 예견한다.

출생하여 존재하면서 행복의 결합체를 이루며 살다가 죽는 것이 반드시 나일진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없는 곳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 외에 나의 의미는 없단 말인가.

이 세상에 주어진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체를 가지고 나를 알고 싶어하는 이 작용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하는 존재로 있게 한 것은 무슨 뜻에서일까.

도대체 인간의 지혜라는 단 가지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자연과 법칙과 우주, 생명과 인간과 지능, 이것들은 이미 있는 것이었다.

오묘한 모든 자연법칙과 생명을 있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지구 방덩어리가 만들어진 시작이 있었다면 태양계의 시작도 있었을 것이고 우주의 시작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종말이 올 것이고 태양도 우주도 같은 운명이 아니겠는가.

시작과 끝을 넘어 선 존재, 모든 것을 있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구약성서 천지창조의 서두에서 나는 참으로 커다란 빛을 보게 된다.

한 처음에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진 사랑 그 자체인 하느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성서를 대하고 나는 바로 그분과의 사이에 내가 애초에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계약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나는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위대한 나임을 직시하게 된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理想과 그분이 실천한 순종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나에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만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이 그분이 바라는 바임을,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도 존재하며 나의 발끝 가장 아래에도 존재하는 하느님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희생과 고통이 행복임을, 아니 모든 만물의 생동이 바로 행복임을, 나에게 주신 죽음까지도 행복임을, 주여, 나의 태어남을 알리는 순간임을 나는 아나이다.

&&&&&&&&&&
& 因　　緣 &
&&&&&&&&&&

오 수 동 (国会研修院)

仏家에서는 人間의 生活을 因緣의 連続이라고 한다. 그것은 삶속에서 人間은 時間的 空間的으로 남과 접촉하여 因緣을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다시 풀어 말하면 직접적인 근거가 因과 협동하여 결과를 맺어주는 緣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萬物은 이 因緣에 의하여 生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軍 제대하기까지의 나의 삶은 이 養成所와의 因緣이 있었기에 그 준비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망상일까? 나의 첫 社会生活이자 職場生活이 바로 이곳이었고 나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사른 곳도 이곳이었으니 한낱 미친 사람의 망상이나 헛소리만 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강한 因과 緣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大学在学時 教育学을 전공하였으나 정식으로 敎職者生活은 아직껏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묘한 因緣은 軍生活中에는 士兵을 敎育시키는 훈련장에서 근무하게 했고 제대후 敎職에의 희망을 버리고 찾아든 직장인 이 곳 国会에서는 速記士 養成所의 学生들을 지도하게 했다. 그 때 나는 因緣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因緣에 충실하기 위해 学生들에게 그 지겨운 잔소리를 기회있을 때마다 해주었던 것

같다. 싫어하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도 말이다.

그럭저럭 時間은 어김없이 흘러가서 9期生들의 수료식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그 뒤 국회공무원연수원으로 전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養成所를 떠나는 날 그간의 수많은 일들이 車窓에 흐르는 풍경과 같이 쉼없이 다가와서 지나가곤 했다. 희 노 애 락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은 成長해서 社会人으로서 한몫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대견스러움과 함께 나자신도 대견스러워지는 것이다. 그 대견스러움의 의미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니 가끔 養成所를 찾아보는 일도 없지는 않다. 그때마다 教務室과 教室을 둘러보면 공허를 느끼는 동시에 감개무량(?)함을 느낀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学生들이 나를 몰라 보아도 웬일인지 그들이 모르는 이들 같지가 않다. 오히려 따뜻한 情마저 느끼는 것이다.

養成所의 同門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因縁이라는데 항차 10年의 生活임에랴!

이제 社会에서 다시 만나게 될 여러분과 나와는 보다 発展的이며 2次的인 因縁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의 因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本人은 속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속기가 무엇인가는 배워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속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수성을 알고 있읍니다. 그 誠実性과 끈

기 또한 알고 있읍니다. 부디 그 좋은 점을 잃지 말고 분투 노력하여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어서 빨리 또 많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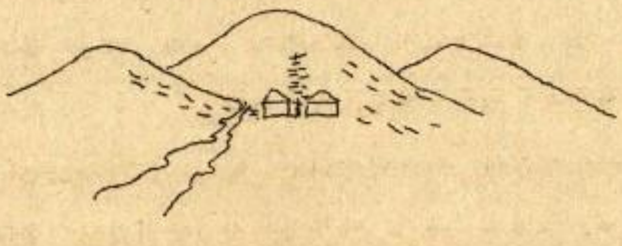
끝으로 貴 同門会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하며 戊午年에는 会員 各自의 所望이 이루어 질 것을 祈願합니다.

同門会의 無窮한 発展을 祈願합니다.

華東産業 代表 李 龍 侏

TEL 21.5196.5678

965-2946 (夜間)



非 常 金

김 정 민 (6期)

언제나처럼 하학길에 들어선 나는 학우들과 함께 조잘대며 찻길까지 걸어 나왔다. 그리곤 언제나처럼 내일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기 집으로 향하는 버스길에 올랐다. 한데 내릴 때가 되었으나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버스표의 행방.

맘씨 좋은 안내양덕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그냥 내릴 수 있었지만 다시 갈아타야 하는 버스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쬐 끄만 중학교여학생은 서울역에서 집까지 마냥 걸어야 했다.

추운겨울 얼굴은 하늘로 날라가고 발은 땅으로 꺼지는 듯 한 강다리를 지나 노량진 고개를 넘어 집에 당도한 것은 해도 잠든 밤하늘만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였다. 사연을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린 마마의 얼르기 작전은 얼어붙은 얼굴에 뜨끈한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어쩨 서론부터 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좀 미련단 듯한 얘기가 나와 좀 우스울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류의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안다.

한번은 사무실에서 서류우송하는 일을 도와주고는 우표를 얻은 적이 있다. 이날도 그저 아무런 사전순비않고 올라탄 버스, 상

도지서앞 내리실분 앞으로 나오라기에 얼른 나가섰지만 텅빈 지갑속엔 15원뿐 아차하는 순간에 벌써 버스는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고 안내양에게 15원과 함께 아까 얻은 우표를 수두룩하니 주면서 편지할 때 쓰라고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이렇듯 숙녀의 형편없는 살림살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 같아 약간 주춤하지만 나같은 사람이 없지만 않을 것 같아(극히 드물겠지만) 일꺼기 용기를 내어 본 것이다.

그 후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전되었을 때었다. 이때는 완전히 섬마을 처녀가 되어 출퇴근 길을 통근버스에 몸을 맡기고는 방랑김삿갓도 아니면서 주머니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지내왔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또 변이 될 줄이야.

정기국회중에 상임위원회가 늦게 끝났으니 통근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고 이때 또한 까마득한 기억을 상기 못하고 무심코 타버린 버스 갈아타는 지점에 왔을 때는 다시 또 한번! 눈앞에는 수많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이젠 소지품 중에서도 내어줄 게 없으니 사정을 하는 수밖에 (先例에 의해 완전히 상습화된 기술) 하지만 다음에 탈 버스가 문제었다. 안내양이 맘씨좋게 생긴 분을 골라잡아 타고서는 미리 양해를 얻어놓는 일말의 양심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보구 층계를 단번 밟으면 그만큼 승객숫자가 기록되니까 밟지 말고 내리라는 것이었다. 역시 공짜는 없었던 것이다. 때아닌 곡예까지 해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버스에서 버스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바랄게 무에뇨?

同門会員中 어느 분께서 가게를 하나 차리셨노라고 하여 부회장입네시고 퇴근후에 여러 직원과 함께 화분을 하나 사들고 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늦은 시간이 되었고 나는 서둘러 버스길에 올랐다. 동문회원이 태워준 버스(남영동行)에서 오직 집만을 향하는 집념에 불타며 남대문을 거쳐가리라고 생각했던 버스가 이상하게 중앙청쪽을 향해 사정없이 달렸고 그래도 한점 의심없던 나는 돌아가려니 생각하고 그대로 안주했던 것이다. 헌데 듣도보도못한 고갯길 꿈속에서나 볼까 어딘지도 모르고 감히 내릴 수도 없을만치 어둠한 길이 어찌나 오래 계속되는지 옆엣사람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잘못탔다나?

한참을 달려왔으니 어언 시간은 11시가 넘고 내가 내린 곳은 홍은동이라는곳. 집까지의 거리가 까마득한 구만리 같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낯선 곳은 내게는 먼 이국땅만 같았다. (이국은 아직 한 번도 안가봤지만)

때마침 내겐 걸맞지 않게 주머니사정이 양호하여 「택시릴레이」를 할 수 있었다. 「택시릴레이」란 내가 붙인 말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는 말이다. 잡아탄 택시가 밤이 너무 늦어 차고에 가야기 때문에 서울역까지밖에 못간다나 그래 서울역에서 내려 아무리 시흥가는 차를 잡으려 해도 모두 NO! 약간 당

황한 나는 이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쨌든 거리상으로 가까와지고 보자며 노량진行을 합승. 앞에 앉은 술취한 양반이 같이 가자며 홍열내는 것을 뒤에 남기고 곧 이어 탄 것이 내방동行 다시 내려 천신만고끝에 잡은 차가 드디어는 시흥엘 데려다 주어 땡신사 아닌 땡숙녀로서의 기질을 마음껏 발휘했던 것이다.

이젠 택시까지 나왔으니 다음엔 뭐가 나올까 사뭇 궁금할 것이나 서민의 교통수단으로써는 최상급까지 나오지 않았나 한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써 놓긴 했으나 자기의 허점을 모두 공표하는 바보스러움의 극치가 또 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신사나 숙녀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분께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터득하여서 앞날에 틀림없는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의 헛점이 그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파악한 바 있겠지만 몇번을 당하도록 무디었던 나의 마음은 돈을 쓴 후에야 비상금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이 꼭 돈으로서의 비상금만은 절대 아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님으로써 어떤 재난에 처하더라도 그 여유분을 내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좁은 소견을 피력해 본다.

1978. 1. 27.

× × × ×

※ 고통의 질식으로 부터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일에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선 우리들은 여러가지 삶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들에게 運命으로 주어진 상태를 값없다거나 重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他人들의 삶의 형태도 두려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일 자체에 눈을 돌려 거기에 精神을 집중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잃음으로 해서 자신을 완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지지 않는 幸福도 얻을 수가 있읍니다.

— 루이제 . 린저 —

智異山紀行

山 — 꿈 만 같 은………

金 惠 碩 (8期)

丁巳년은 내게 새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으나마 중요한 시작이 많았다. 그 中 자연과 통해 보려는, 유랑의 멋을 느껴보려는 행동의 시작이 있었다.

丁巳 초가을.

求礼를 向한 장차(長車)는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노래와 얘기를 주었고 섬진강녘 여명의 무렵에 나는 안개에 잔뜩 싼하여 가끔씩 반짝이는 불빛처럼 감탄을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명은 生動感있게 漸次로 漸次로 빛을 가져다 주었다. 어둠으로부터의 빛!

은근한 東洋画나 같은 이 아침의 意味!

求礼駅에서 화엄사까지의 깨끗이 포장된 시골길에는 「코스모스」가 그토록 애떠게 고울 수 없었다. 푸른 듯 누른듯 山이 내 앞에 크게 누워 있었다. 화엄사에 到着하면서 아침食事가 準備되었고 그 곳을 내려 달리는 차—안뭍에, 사방에 펼쳐져 있는 푸르름에 나는 정신을 잃었는가 어쩐 실수인지………같이 간 우리 다섯마음은 쭉 하나 같았다. 그리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가 한다.

과식한 아침

고색창연한 목조물, 샘터며 탑이며를 둘러보고 호박이 열매맺어 있는 길을 따라 노고단을 向한 대행군을 시작하였다. 처음 길은

몸이 아직 굳었던가 잠이 不足하였던가 어려웠으나 동행한 마음의 도움을 받으며 맛있는 점심의 時間까지 닿았다. 작은 돌위에 앉아 골짝물에 손을 담아 내게 묻은 때 씻어 흘려 보낸 때 하늘은 어찌 그렇게도 푸르렀고 나무는 어찌 그 고운 색을 내어 놓았는가! 하늘은 나를 품으려 하는가 나무는 나를 달래려하는가! 이 모든 것을, 하 많은 것을 감사하여야 되리라.

몸을 추스려 기운을 내어 午後進軍을 한다. 좋아진 기분에 날듯 올랐다.

제속한 마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다 오르니 연이은 山들은 내 눈아래 아득히 자리잡아 앉았고 하늘위 나는 초가을의 巨山의 모습을 눈에 담기에 바빴다.

그때가 4時 쯤.

노고단 산장으로 올라 자리잡고 저녁을 지었다. 일찌기 생각지 못한 1,500의 고지에 이리 넓고 아늑한 쉬일 곳이 있다니……

은하의 별밤에 자연에 이끌리어 노래하며 하루를 보냈다.

상쾌한 바람 이는 아침

임걸령 피아골로 向한 이틀째 행군.

정상에서 단풍이 든 골짜기를 따라 갈대밭을 따라 바위를 따라 바람소리 물소리를 따라 행군을 한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진장 재미났다. 웬 얘긴지 웬 노랜지 웬 자연인지………하늘의 조화, 계곡의 고운 돌의 조화, 바람과 구름의 조화, 이 중에서 나는 크고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이 되는 분께 고마움을 돌이켜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더욱 아까와지는 자연

연곡사까지는 8 Km 언뜻 부는 바람에 내 기분을 싣는다. 原我에서 벗어나 사랑스럽고 정다운 일들에 빠져서 내가 누구일 필요가 없이 꿈같이 자연—山—을 지낸다. 어두움으로 끝나가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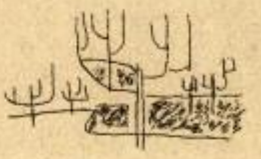
우리의 長車는 5時30分쯤 서울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그동안 가졌던, 곱고 아기자기한 수많은 감정들은 이제 完全히 내 것이 된다. 이것들이 나를 살찌운다.

꿈만 같은 날이다.

모라가 다·················

× × × × × × × × × × × × × ×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法 句 經〕

× × × × × × × × × × × × × × × × ×

雪 岳 山

김 재 학 (6期)

서울을 떠난지 6時間만에 무사히 설악동에 도착할 수 있었다. 神興寺를 바라보며 올라가는 길은 매우 평탄하고 좋았다. 그래 이렇듯 좋은 길만 계속된다면 설악산의 정상은 누워서 떡먹기겠지 하는 마음이 이때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산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멋진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날의 登頂에서 였다.

첫날은 설악동에서만 간단히 몸을 풀고 다음날의 登頂을 위한 준비와 計劃으로 보냈다.

여기서 雪岳山의 記錄을 잠시 살펴보자. 불교의 記錄에 依하면 雪山 또는 雪峰이라고도 불렀으며 금강산을 서리(霜)뫼라 부르듯 설악산은 옛날에 雪뫼라고 했었다 한다.

이산의 主峰은 大靑峰으로 해발 1,708m로 1年중 5個月은 눈으로 쌓여 가히 雪岳이라는 이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같다.

봄에는 진달래꽃 여름에 후박꽃과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雪景으로 登山客뿐만 아니라 觀光客이 많은 이유를 여기서 쓰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옛부터 시인 墨客은 오히려 이산이 금강산보다 雄大하고 秀麗하여 山水의 깊이가 한層 더 하다고 하여 아껴왔으며 수 놓은듯한 맵시가 곱다고 해서 옷입은 금강을 설악산이라고 했다 한다. 이 산은 內雪岳과 外雪岳 그리

고 南雪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外雪岳만을 돌고 왔다. 外雪岳은 천불동계곡을 끼고 양쪽에 솟은 기암절벽의 峰巒美로 男性的인 절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히 壯觀이라고 할만한 곳이었다.

우리가 첫날 到着해서 지나간 곳이 臥仙台라는 곳이다. 千仏洞溪谷 첫머리에 넓이 1정보가량이나 되는 반석으로 樹木이 울창하고 기이한 산악에 둘러쌓여 절경을 이루고 있는 이 台石에서 옛날 摩姑仙이란 仙人이 많은 다른 仙人과 더불어 바둑과 거문고를 타면서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누워서 감상하던 곳이라 하여 臥仙台라 했다 한다. 조금더 올라가니 물소리가 너무 성청해 행인의 발걸음을 아니 머무를 수 없게 하는 곳이 있어 잠시 쉬었더니 여기가 飛仙台라 한다. 여기에서 摩姑仙이란 仙人이 하늘로 올라 갔다하며 그 경치의 아름다움이 臥仙台로 부터 右溪盤石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잘 조화된 것이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케 하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名勝地라 한다. 行人의 갈길이 바빠 다시 발걸음을 오른쪽으로 돌리니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돌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봉우리의 이름은 石上 또는 미륵봉 或은 장군봉이라 했다하며 그의 중간 허리에 石窟이 있는데 이름하여 金剛窟. 이 金剛窟은 오르내리기 힘들어 石壁을 더듬고 수많은 돌層階를 지나 나무뿌리를 휘어잡고 오르니 10평정도의 窟속에 불상이 있다. 여기에 오는 이마다 불공을 드리니 그의 자태가 위엄을 나타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듯하다.

이제 어느덧 어둠이 밀려 오는 듯하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져야 되겠는가 보다 심산에서의 첫밤이라서인지 쉽게 잠이 올 리가 없다.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았다..오늘 처음 만난 5명의 일행이었지만 어쩐지 처음같지가 않다. 溪谷의 물소리는 밤이 깊어감에 따라 그의 濃度도 더욱 우렁차 우리의 合唱에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편이 된 듯 다정도 하다. 심산유곡이 이 아니며 첩첩산중 깊은 곳에 밤이 익어간다. 쉼음이 타 들어간다. 동동주 한잔에 낭만이 용솟음 친다. 생동의 피가 다시 흛는다.
이제 모두들 지친듯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사방이 더욱 고요하다. 그칠 줄 모르는 저 溪谷의 물소리는 이곳 역사의 証人인듯 천년두고 変함없이 울렸겠지. 그리고 흐르겠지……… 아침눈을 뜨니 부지런한 팀은 새벽 6時에 出發한다. 우리도 서둘러 정상을 向해 出發이다. 진군이다. 仁川사는 막내동이 여동생이 따라올지 걱정이지만 우선 배낭은 내가 맡고 뒤에서 족치는 것이다. 말없는 登頂의 行列이 계속된다. 千仏洞溪谷 일대에 천태만상으로 늘어선 천여개의 뾰족봉들이 조각가의 作品처럼 芸術의 極致를 이루고 있다. 제멋대로 생긴 수많은 괴석첩봉들은 어찌보면 사자같고 猛虎로 나타나는가 하면 늙은 스님들의 염불하는 모습처럼 変化無常한 光景은 말없는 行列에 嚴肅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시 간쯤 올라왔다 생각될 즈음 좀 쉬어갈까 멈춘곳이 바로 鬼面岩이다. 十里쯤 푹패인 溪谷에 우뚝솟은 기암괴석에 천여개의 불상들이

정좌하고 있는 것같아 심산의 절에 온 듯 錯覺을 일으키게 한다.. 갈 길이 워낙 멀어 조금의 아쉬움을 남긴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 생각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모두 잘 간다. 다음 目的地인 陽爆山荘을 向한 힘찬 발걸음이다. 길이 조금씩 험해지기 시작한다. 여러 개의 보조다리로 된 길이 고행의 신호인 듯, 그래도 잘 간다. 약 40分쯤 올라가니 5개의 폭포가 협곡사이에 연이어 흘러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왈! 五連爆布라 하나보다.
別로 落差는 심하지 않지만 千年을 하루같이 흘러 떨어지는 저 爆布여! 이제 폭포를 뒤로 저만치 바라보고 20分쯤 더왔나 싶더니 10時가 넘었고 陽爆山荘이 나타난다. 설악산 간이 休憩所이며 宿泊施設까지 되어 있어 날이 저물었을 때 머물러 가는 곳인 듯하다. 이 바로 위에 또 하나의 폭포, 계곡의 左右로 分類되는 地点에 자리잡은 폭포가 있다.
左側에서 흐르니 陽爆布요, 右側으로 陰爆布가 된다. 또다시 발길을 재촉하니 약 300m 쯤 거슬러 올라가니 千仏洞渓谷의 上流에 마지막 자리잡은 아름다운 폭포가 눈에 들어오니 이것이 天堂爆布라 한다.

이곳은 산세가 워낙 險해 옛날에는 보통 觀光客은 도저히 觀望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觀光路 개설과 함께 15개의 조교와 수개의 사다리가 놓여 있어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오다가 이곳에 오르면 마치 天堂에 이른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 하여 天堂爆布라 했단다. 이제 산중턱은 넘은 듯 그렇게 지칠 줄 모르

던 물소리도 귓전에서 멀어져 간다. 해발 1,000m는 훨씬 지난듯 나무와 풀뿌리에 의지해 올라간다. 땀이나도 멈지가 않다. 숨이 차도 지치지를 않는다. 인간의 執念이 눈에 집힌다. 보람과 긍지로 올라 간다. 처음 出発速度보다 보폭이 훨씬 무딘 것을 実感할 수 있다.

수통을 準備하지 못한 것이 후회롭다.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잘 따라와 주니 힘이 솟는다. 배낭을 두개 멘 내가 철인이 과연 아니었구나. 몹시 시장끼까지 돈다. 아마도 물까지 없고 가파른 경사라 가장 고비인 듯하다. 다음 目的地는 喜雲閣이다. 얼마 남지 않은듯, 멀다. 그래도 가야만 한다는 강제적 의무감이 作用해 밀고 당기고 해서 과연 왔다. 여기가 喜雲閣이다. 구름이 아래로 집힌다. 陽爆山莊에 이은 두번째 休憩所이다.

점심식사를 여기서 마치고 모처럼 긴 休息을 가졌다. 라듸오를 들으니 춘천방송에서 봉황대기 야구중계 방송이 나온다. 오후 1時가 넘어섰다. 5時間이상 온 것이다. 이제 青峰이 눈에 보인다. 배낭은 일단 休憩所에 맡기고 빈몸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 날듯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最悪의 난코스가 바로 여기인줄 모르고 덤벼들었던 것이다. 大青峰까지 이제 한시간 남짓 구름을 저만치 아래로 갖가지 수많은 기암절벽과 봉우리들이 내려다 보인다. 식물과 나무들도 키가 작다.

高山이라는 것을 이것들이 代弁해 주는 듯하다. 계곡의 물소리가 또 안 들린다.

그러나 이제는 물만은 꼭 챙겨왔으니 조금은 안심이다. 여기 이 계곡이 伽倻洞 계곡이라 한다. 조금 위로 恐龍稜線, 이 稜線을 따라 青峰에 오르는 것이다.

一行중 男子 5名은 배낭을 喜雲閣에 맡겨 코스는 험해도 수월했으나 여자 두명은 처음부터 배낭을 대신 지고 와 여기에서 가장 힘이 들어 보인다. 별 수단을 강구해도 별 수 없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 비상수단으로 수건을 두개씩 엮어 잡아 끌고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소청봉이 눈에 보인다. 해발 1,600 m 이상은 왔다. 나는 이때 땀이 비오듯 쏟아졌는지 비가 땀처럼 내렸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천신만고의 신고 끝에 소청봉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야! 동해가 보인다. 수천만개의 봉우리들이 모두 한눈에 보인다. 強風이 南西쪽에서 세차게 몰아친다.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과연 장관이다. 달리 무어라 말할 수 있으리오.

곳곳에 케른(돌탑)을 쌓아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다녀간 흔적이 보인다. 야-호 소리가 계곡과 계곡을 이어 동해안으로 퍼져 파도에 휩싸여 사라지는 듯 싶다. 이제 중청을 거쳐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떡먹고 누워있기나 마찬가지이다. 고도 100 m 정도의 차이로 中青峰과 大青峰이 이어져 있다.

中青峰에서 大青峰으로 이르는 길에 눈잣나무가 高山의 멋을 한層 돋구어 준다. 비바람 찬서리에도 굽힐 줄 모르고 오늘까지

수천.수만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이다. 이제 最頂上 大青峰이 바로 눈앞에 와 닿는다. 太極旗가 펄럭인다. 여기는 자유 大韓民国임을 분명히 確認이라도 하려는듯, 몇몇 사람들이 거기있다. 털보아저씨도 저기서 손짓한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입니다.

원래 청봉은 鳳頂이라 썼다한다. 그러나 成海応의 東国名山記에 青峰이라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렀다 한다. 야. 이제는 내가 王이다. 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苦心끝에 온 것이다. 東海의 푸른바다도 보인다. 저 아래 雪岳洞 出発地点은 시야에 잡히지도 않는다. 15Km의 먼거리니 당연하리라, 남한에서는 한라산.지리산 다음의 둑대기이다.

좀더 머무르고 놀러 있고 싶지만 벌써 3時가 돼오고 날씨 또한 쌀쌀해 하산길에 접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산속에서의 밤은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쉽게 어두워져 금방지척을 분간할 수 없으니 빨리 하산할 수 밖에 없었다. 무거운 마음 가득 안은채 말없이 걷고 있었다. 다시 오리라는 기약과 무언의 아쉬움을 남긴채…………

〈短篇〉

江 辺 素 画

李 承 哲(四期)

나는 눈을 몹시 좋아한다. 특히 漢江辺의 모랫벌을 걸으면서 맞는 소담스러운 함박눈에는 그만 미치고 만다.

그날도 漢江辺을 찾았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졌기 때문에 마치 쇠붙이가 磁石에 끌리듯이 이곳으로 이끌려 오고야만 것이다.

걸었다. Y도 없이 혼자서 마냥 걸어 나아갔다. 漢江大橋 밑으로 해서 서부이촌동 쪽으로 걷는 것은 Y가 가르쳐준' 탓이었다.

붉은 바탕에 하이얀 눈이 수놓여진 듯이 희끗희끗한 「오버코트」의 깃을 올린채 주머니에 두손을 꽂고 걸었다. 아무도 없는 강가모랫벌에 쌓였다 녹고 녹다가는 얼어붙은, 눈밭을 사각사각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유난히도 크게 메아리졌다.

쏟아지는 눈에 하늘은 온통 뒤덮여 뿌우옇다. 黑石洞쪽의 불빛들이 눈에 녹아 포근한 맛을 주었다.

「빠―앙」!

막차인듯한 수원행 전철이 저만큼 위에 있는 철교를 미끄러져 건너고 있었다. 그 強熱한 「헤드라이트」에 노출된 눈발은 더욱 미친듯이 춤을 추었다. 불빛이 훤한 車안은 안온하고 아늑해 보였다.

나는 발길을 멈추고 부서진 교각밑둥의 「시멘트」조각위에 손으

로 눈을 쓸고 걸터 앉았다. 취기 탓인지 매운 강바람 탓인지 고운 내 눈에는 한줄기 실핏줄이 섰다. 얼굴에 부딪쳐 녹은 눈물 때문에 화장은 얼룩이 졌지만 어두운데 굳이 얼굴을 다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았다. 꼭다문 입과 동그마한 내 두눈을 보고 남들은 나를 영악지다고들 했었다. 또 작고 동그스름한 어깨는 엄마를 닮았다던가?

가로등은 내리는 눈에 파묻혀 희뿌옇고 둥그런 윤곽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물에 비친 출렁거리는 불빛을 조용히 내려다 보다가 머리에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괜스레 흔들어 털어 보았다.

더는 서슬에 목덜미로 눈이 튀어들었다. 갑자기 파고드는 선뜩한 감각에 소름이 쪼옥 돋았다. 동시에 江心으로 부터 한 사내의 얼굴이 떠 올랐다.

동동한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50代의 K. 그는 두아이의 아버지며 돈 잘쓰는 社長님이었다.. 처음에 그는 나를 귀엽다고 했다. 또 이쁘다는 단어를 어색한 듯이 입술을 실그리며 자주 썼다. 病院院長님의 친구분이라고 해서 가끔 만나게 되었고 명절이나 되면 꽤나 至極한 호의를 보여주곤 했었다.

그러나 동생의 学費件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는 人面獸心이었다. 결국은 나에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주고야 말았던 것이다.

눈이 녹으면서 가슴언저리 까지 타고 흘러들었다. 체온이 녹은

눈물은 미지근했다. 희뿌연 눈발속에서 Y의 영상을 그렸다. 그는 C工科大学 卒業生이었다.

조금전에 T「홀」에서 나와 헤어졌다. 내일이면 그는 独逸行 비행기에 자기의 꿈을 싣고 한껏 날개를 펼칠 것이다. 특수강철을 연구하러 떠난다고 했다. 아마도 그의 父母님의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와 그 나름대로의 計算下에 떠나는 것이겠지……. 学位만 따내면 곧 돌아오마고 했으나 現実은 時間과 함께 끝없이 변모해 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내가 아닌가? 또 K를 생각하면 도저히 Y를 미래의 배필로서 맞을 수 없기에 나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Y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엉덩이에 「시멘트」로 부터 냉기가 스며 올라왔다. 뼤속까지 짜르르한 냉기다. 나는 일어나서 마포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찬데 앉았던 탓인지 Y와 함께 마신 麦酒탓인지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나 오른쪽의 江辺「아파트」의 불빛을 세며 천천히 발길을 옮겨 나아갔다. 꼭 가야만 한다는 그 이유가 나를 뒤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눈발이 바람을 타고 얼굴로 꽂혀 들어온다.

철교밑을 지나니 모래를 채취하고서 내 버려둔 웅덩이 근처에 다다랐다. 그곳은 Y와 자주 왔던 곳이다. 난생 처음으로 異性을 느끼게 해준 Y는 서부이촌동의 江辺「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지난 여름 그의 방학때였다. 비번이라 쉬는날 그의 「아파트」근처 P다방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낚시줄과 찌와 바늘을 사오라고 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사갖고 가보니 매미채에

다가 줄을 매고 바늘과 찌를 달았다. 또 德分에 이촌동의 하수도 수채구멍을 뒤져보게도 되었다. 그 시궁창 냄새를 맡으며 징그러운 지렁이를 나무젓가락으로 잡아내던 Y였다. 분유깡통에 물기있는 흙을 반쯤 담고는 거기에 지렁이를 붙었다.

江辺에 나와 웅덩이 곁에 자리를 잡았다. Y는 잔인하게 지렁이를 손으로 토막내서 낚싯바늘에 꿰었다. 나는 안보는 체 했지만 사실은 보았던 것이다. 그에게 일면 잔인성이 있다는 것을…웅덩이의 수면에 떠 있던 찌가 까딱거리다가 쑥 들어가고, 올라와서 수평으로 눕거나 할 때면 Y는 잽싸게 매미채를 잡아챘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石油내 나는 피래미가 탁탁 몸을 뒤채면서 아가미고 눈알이고 지느러미고 바늘에 꿰여서 끌려 올라왔다. 나는 그때마다 징그럽던 지렁이 생각은 함빡 잊고 그저 잡아올린 피래미를 맨손으로 잡아 주전자에 넣는 용기를 보였다. 그 미끈덕거리는 감촉이나 손끝이 바늘에 찔리는 것쯤은 개의치 않고서 말이다.

그러한 追憶이 깔린 웅덩이 앞에 지금은 나혼자 서 있다. 이제 다시는 껄껄대며 낚싯대를 휘두를 Y도 없고 푸들푸들거리는 石油내 나는 피래미나 징그러운 지렁이 깡통도 없을 것이다.

소록소록 내려앉은 흰눈이 얼어붙은 웅덩이 가를 바람에 쫓겨다니고 있다. 지금도 꽁꽁 얼어붙은 저 웅덩이 밑에는 피래미들이 노닐면서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언 웅덩이 가에 끝이 휘어 꼬부라진 썰매꼬챙이가 나동그라져 있다. 낮에 와서 놀던 동네 꼬마들이 버리고 간 모양이다.

다가가서 발로 차 보았다. 얼음위에 깔린 눈을 가르며 주욱 밀려나갔다.

빙판위를 늘씬하게 미끄러져 돌아가는 Q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피규어」를 잘 타는 Q는 Y에게 곧잘 동대문이나 태릉으로 「스케이팅」가자고 하며 웃음을 눈가에 흘렸고 그때마다 절친한 同窓인 고 계집애는 얄밉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를 제일 이해해 주는 벗이라면 Q뿐임에는 틀림이 없다.

거기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멀리 강가에 자갈채취선이 얼어붙은 강위에 곳박혀 있었다. 휘청거리는 발을 떼어 얼어 굳은 눈 도화지에 발도장을 하나 둘 찍어갔다. 싸늘한 강바람이 「오버코우트」밑으로 들어와 허벅지를 휘감아 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젯날 묘지에 찾아가 맞은 바람도 이렇게 차가 웠다. 또 재작년 겨울 어머니마저 高血圧으로 돌아가시던 날도 창문이 몹시 흔들렸었다.

그래도 血肉은 하나 남아 있었다. 商経大学을 오는 卒業하고서 病院으로 날 찾아 왔던 남동생이 있다. 그는 낮술에 벌개진 얼굴과 눈으로 나에게 다가서서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生活費를 맡기라고 호기있게 큰소리를 쳤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活気찬 모습이어서 매우 반가왔다.

就職도 되었고 月給도 꽤나 많은 축에 든다고 했다. 속으로 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웃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같았기 때문이었다.

가까이에 자갈채취선이 보였다. 불빛이 있는 것을 보니 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발동기 소리는 없었다. 아마 강이 얼어붙어서 잠시 作業이 중단된 모양이었다.

Y와 함께 어설픈 낚시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강에 사람이 빠져서 떠내려 간다고 들레는 소리를 듣고 강상을 둘러 보았다. 채취선 가까이에서 들쑥날쑥하는 수박만한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Y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채취선 쪽으로 뛰어갔다. 뛰면서도 강상의 그 물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물체는 두세번 드나들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살이 세어서 아무도 그를 구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멍하니 수면만 바라보다가 Y에게로 다시 돌아와 낚시를 거들어 주었다. 그러나 웬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해질녘이 가까와져서 Y도 지루함을 느꼈는지 그만 일어섰다. 잡은 피래미들을 담은 주전자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사람 건졌다는 소리가 났다. 또 마포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곳으로 몰리고 있었다. 채취선 옆이었다. . Y도 나도 구경삼아 그리로 갔다.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낮동안 기승을 부리던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모래는 아직도 식지 않아서 맨발인 Y는 발로 선자리를 후벼파고는 그 자리에 들어섰다. 수영「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그것은 동태마냥 뻣뻣했다.

高2정도의 까까머리였다. 손은 허리께로 가지런히 내려져 있었는데 두다리는 구부러진채로 있었다. 입술은 짙은 자줏빛을 띠운채 마치 고이 잠든 모습이었다.

그를 건져낸듯한 사내가 네시간만에 찾았다면서 젖은몸으로 침을 튀기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시체 인양 경위를 분주히 설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땀내와 채취선의 기름내, 후끈 와닿는 지열에 구토증을 느꼈다.

뚝 위에 택시가 한대 섰다. 그 學生의 어머니인듯한 부인이 허둥지둥 뚝을 내려와서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왔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시체옆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 알몸을 주무르고 쓸어주고 하다가는 그만 통곡을 터뜨렸다. 아직 살아 있는데 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느냐고 물에 젖은 그 용사(?)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그 용사는 모래바닥에 침을 퉤! 뱉았다.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벗었던 옷들을 챙겼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으란다고 투덜대면서 모래를 걷어차면서 뚝위로 올라가 버렸다. 물에 빠진지 네시간이 지났고 그 용사의 말대로 항문이 열렸다면 틀림없이 죽은 것이라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는듯이 수근거렸다.

바로 그 자리에 나는 쪼그리고 앉았다. 두손으로 언눈을 파헤치고는 모래를 한줌 쥐었다. 한여름 햇볕에 익었던 그 모래알들은 이제는 눈속에 묻혀 싸늘하게 식었지만 눈보다는 따뜻했다.

속으로 더 파보았다. 조금 더 따뜻했다. 어머니의 따뜻하면서도 물기어린 젖이 생각났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서는 더욱 어지럽게 눈발이 춤을 추었다. 몸은 마냥 모랫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 허공으로 둥둥 뜨는 듯했다.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K를 생각했다. 소름이 끼쳤다. Y를 생각했다. 죄책감이 앞섰다. 동생을 생각했다. 대견스러웠다. 모랫속에 묻힌 손목이 아려왔다. 얼굴에 차가운 눈송이가 부딛쳐 왔다. 눈을 슴뻑여 보았다. 강변도로를 질주하는 車輛들의 헤드라이트가 예쁘게 아롱졌다. 심호흡을 했다. 눈송이가 코로 빨려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가 콧물이 되어 흘렀다.

일어서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희뿌연 하늘에 남해의 외딴 섬이 보였다. 나환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보였다. 흰옷을 입고 일하는 내가 보였다. 눈섭이 없고 코가 문드러진 노인의 눈망울이 擴大되어 왔다간 사라져 갔다.

江边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담스럽고 하이얀 눈이 한없이 내리고 있었다. 얼지 못한 漢江물은 내리는 눈을 모조리 삼키면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발길을 돌려 둑을 오르기 시작했다. 남해의 외딴 섬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쌓인 눈을 흔들어 떨어버렸다.

〈書簡文〉

어 머 님 께

안 순 희 (6期)

어머님, 당신의 곁을떠나 하루밤을 지내고 저희들 지금 어머님의 품같이 끝없이 넓고 산잔한 이곳 동해의 새벽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님 아버님께 아침인사 드립니다.

곤히 자는 동생들을 어서 해돋이 구경가자고 깨워서 서둘러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 × × ×

어머님 어제밤엔 저희의 조그만 「방갈로」를 사정없이 때리는 무자비한 소낙비의 후두둑거리는 소리와 처음 바닷가에서 자보는 저에게 더욱 크고 무섭게 들리던 거센 파도소리에 아무리 잠을 청해 보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뒤척이다 비가 그치길래 밖에 나가보니 언제 비가 왔느냐는듯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 많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정말 이같이 아름다운 밤하늘은 처음이예요. 마음껏 별자리도 찾아보고 구경하다 「방갈로」에 들어 가보니 신희, 정희, 유신이 모두 먼길 오느라 고단했던지 여전히 깊은 꿈나라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못했던 언니노릇(?)도 할겸 동해바다로 여행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의 환호성을 울리던 모습을 그려 보았읍니다.

어머님, 어제 「터미날」까지 나오셔서 웃으시며 손 흔들어 주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저희가 서울을 떠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들떠서 조반을 제대로 못해 시장하다고들 해서 어머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창 밖에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대관령 고개를 넘을 때 갑자기 쨍쨍쬐던 뜨거운 여름햇볕은 간데없고 서서히 시야가 안개끼듯 흐려지더니 추위를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며 여기저기 구름이 날아 다니고 저희가 탄 차는 구름속에 서서히 빠져 나가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파른 절벽같은 계곡들이 보였어요.

좁고 아주 위험한 길이어서 차는 조심스레 한발한발 기어가듯 내려갔답니다.

저희는 구름속에 저희가 있는 것이 너무 신비해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어린애같이 창 밖에 손을 내밀어 구름을 잡아 보려고도 했었어요.

또 정상을 지나 내려올 때의 그 별천지같이 보이던 그 강릉시의 풍경 또한 잊을 수 없답니다.

참 어머님, 어제 대관령 휴게소에서 어머님께 보여 드리려고 「에델바이스」 목걸이도 사 두었어요.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오다보니 어느덧 연곡에 도착이 되었어요.

막상 낯선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되니 조금씩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장의 낯익은 분들께서 반가이 맞아 주시며 집까지 들어 주시고 또 제일 예쁘고 편리한 곳에 「방갈

로」를 정해 주셨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림에서나 보던 그 끝없이 새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그 푸르고 광활한 바다가 우리 눈앞에 탁 펼쳐졌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희들만 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왔답니다. 함께 보셨더라면 하는 생각에요.

처음으로 이와같은 바다풍경을 보는 동생들은 짐도 다 챙기지 않고 허둥지둥 맨발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달려가서는 시간 가는 줄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저희들의 이 즐거운 표정을 어머님께 보여 드리려고 사진도 찍어 두었어요.

어제까지 날씨가 참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오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해를 몰고 왔다고 하셨어요.

× × × × ×

어머님, 지금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진다홍의 새빨간 해가 저기 바다위로 서서히, 조심스레 떠오르며 서울에서 하던 그 정다운 아침인사를 이곳에서 더욱 정답게 우리에게 보내 주네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와 마냥 쳐다보고 있노라니 신희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문득 떠 오릅니다.

「아침저녁 우리들은 서로서로 사랑하고 근심걱정 나누며 믿으며 살아가네

고통을 서로 나누면 마음 가볍게 되고

내근심 너 위로하고

네슬픔 같이우네 ～ 」

오늘따라 더욱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희, 정희 유신이 모두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저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임을 온 몸에 느껴봅니다.

어머님, 저는 저 무한하고 신비로운 내자연이 무언의 정확한 질서속에 쉼없이 생동력있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 아침 다시금 실감나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제 발아래 길다랗게 깔려있는 작은 모래알들의 반짝임을 보며 또하나의 저를 보는 것같아 다정하게 웃음을 보내봅니다. 저만큼이나 작은 모래알에게……

어머님, 저는 아침해와 아침바다와, 금모래와, 갈매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진 저를 더욱 사랑하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님의 괄임을 인해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 × × × ×

어머님 어느덧 해는 높은 하늘위에 떠 있네요. 어서 아침식사를 끝내고 오숙렬이며 소금강이며 둘아봐야 겠어요.

오늘 아침엔 특별히 굴어징어볶음과 조개탕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어머님, 동생들 시장하지않게 제가 잘 보살피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저희들 걱정일랑 조금도 마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77年8月×日 　　어머님의 맏딸 姬올림.

한 여인을 그리며

권 영 찬(5期)

성에낀 창에 이슬방울이 맺혀 흐르고 있읍니다.

흐르는 방울사이로 서서히 녹아 내리는 희미한 그림자를 찾고 있읍니다.

까만 눈동자가 나타났읍니다.

조각조각 금이간 수정체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산산히 부서져 내 언저리를 감돌고 있읍니다.

향긋한 내음이 창안으로 스며들어 왔읍니다.

향기짙은 들국화처럼 그녀의 체취는 뜨거운 용광로로 변하여 내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읍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녀의 자장가를 들으며 이제 나는 지친 날개를 접으면서 한 여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수많은 정령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글을 드립니다.

나는 뭇별들 중에서 제일 빠르고 연약한 어린 굴벌이 되기를 원했읍니다.

나는 포근한 어머니의 베개속에서 환상의 날개를 접고 탐닉하기를 원했읍니다.

나는 대가 굵어도 부러지기 쉬운 소나무보다는 대가 가늘어도 질긴 대나무가 되기를 원했읍니다.

프랑스의 독설가 「라로슈프코오」는 말했지요.

≪어떠한 정열의 미련으로서 마음이 아직 동요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욱 새로운 정렬의 포로가 될 우려가 있다≫

정열의 미련이 쌓여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열의 미련과 마음의 상처는 엄연히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단가지는 확신할 수 있읍니다.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아낌없이 사랑해 왔다면 싸늘한 정열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는 덜 할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열을 맞아들일만큼 마음의 문은 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총명한 두뇌를 사랑했읍니다.

나에게는 그녀의 예지가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였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을 사랑했읍니다.

나에게는 그녀의 재능이 내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지혯네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우수에 찬 눈동자를 미워했읍니다.

나에게는 그녀의 슬픔이 내 야윈 뺨을 다듬는 방망이였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꽉다문 입술을 미워했읍니다.

나에게는 그녀의 침묵이 내 마음을 더욱 멍들게 했으니까요.

그녀의 환희를 내 심장의 고동속에 냉동시켜 놓았읍니다.

그녀의 눈물을 내 한숨에 섞어 마셨읍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의 문는 영원히 열리지 않았읍니다.

나는 터질 것같은 내 가슴을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

어떻게든지 내가슴에 구멍이라도 뚫려지기를 원했읍니다.

나는 그녀에게 강요했읍니다. 마지막 칼을 빼들고.

그녀는 나를 무척 아꼈읍니다.

나의 순수한 마음이 멍들지 않도록 조그마한 자극이라도 주기를 원치 않았읍니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나는 그것을 원했읍니다.

높고 높은 벼랑에서 나는 그녀에 의해 떨어지기를 원했읍니다.

스스로 떨어지기에는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드디어 나는 좀 가분한 기분으로 벼랑아래로 떨어졌읍니다.

떨어진 곳이 바로 병영이었읍니다.

3년 군내생활이 그녀와 나사이를 홍수처럼 갈라놓았읍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밖에 남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았읍니다.

언젠가는 폐허속에서도 옥답을 가꾸어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할테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월의 변화가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읍니다.

변화없는 단조로운 생활속에서의 몽상적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격랑의 세월속에서 다져져온 그녀의 마음을 따라 잡기에는 내마음이 너무 치졸했읍니다.

「나르치스」를 영원히 사랑하다 메아리로 변한 에코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사장시킨 그 수많은 밀어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멀리서나마 갈등과 오욕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면서 살아온 나이지만 결코 지난 추억을 후회하지 않는 기개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녀는 나에게 영원한 우정과 승리의 여신을 주었읍니다.

나는 그녀에게 반으로 찢겨나간 사랑과 싸늘한 정열을 주었읍니다.

이제 허황된 독백도 서서히 막을 내려야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하나 있읍니다.

어서 빨리 머나먼 방랑의 길에서 헤쳐나와 아늑한 휴식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원한 안식의 길을 찾으시기를 ………

이 야 기

(8期) 김 주 성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파함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소박한 마음일는지 모르겠다.

나도 꽤나 이야기를 즐겨한다.

낯선 사람과도 몇마디 이야기로 친숙해질 수 있고 여러계층의 사람과의 이야기에서 미처 몰랐던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대강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하면 너무 지나치다할까?

이야기는 어디서나 그 멋이 있다.

山行길에서의 이야기는 경쾌하고 붐비지 않는 버스속에서의 이야기는 아기자기하고 공중목욕탕에서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서먹서먹하고 온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아늑하고 흥겹기만하다.

이야기는 누구나와 해도 좋다.

갓난아이와의 눈으로의 이야기에선 포근함이 더벅머리소년과 이야기에선 천진스러움이 단발머리 여학생과의 이야기에선 깜찍함이 단정한 고교생과의 이야기에선 나의 과거를 회상케 해 주어 좋고 영민한 여성과의 이야기는 내마음을 한없이 승화시켜주며 허물없는 벗들과의 이야기는 싱그러운 꿈이 있어 좋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 첫 말을 꺼내기가 힘듦은 누구나 다 느끼리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말엔 적당한 호칭이

몇가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같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로움과 유머러스함을 총동원시켜 상대방의 메말랐던 입술이 서서히 열려져 급기야는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며 이야기삼매에 빠져들도록 애써보는 것도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는지?

교도소를 갓 출감한 어느 죄수와의 이야기 대학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마주 앉은 담임선생님과의 이야기 망녕이 든 어느 할아버지와의 이야기 흰눈을 맞으며 걷던 어느 소녀와의 이야기………

나의 뇌리를 언뜻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나에게는 꽤 값나가는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답고 깊이있는 이야기가 쌓이게 될는지.

◎ 明 暗 ◎

박 옥 경(5期)

흘러가는 계절이 하얀 눈송이속에 스며들어 지하실에 잠든다.

투명한 유리알같이 매끄러운 빙판위로 차겁게 걷는 발길들이 내 머리위로 밀물처럼 흐른다.

낮은 촉광이 쏟아져 내려 숱한 영상을 그리던 정하게 울리는 흐릅고운 선율이 하루의 일과처럼 살에 와 박힌다.

어 둡다.

눈이 시린 태양의 따사로움을 마다한채 빛깔고운 포도주처럼 붉은 스텐드아래 하루를 모두 지키는 시각의 망각지대에서 내 세월을 삼키고 묵묵히 지켜 앉는다.

난 하루에도 몇번을 그로부터 달아나고 다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언제나 후조처럼 찾아드는 낯익은 얼굴들을 인형처럼 맞는다.

너의 얼굴은 희다.

통곡으로 밤을 새우고 다섯걸음 걸어온 이의 얼굴이 아니다.

부딪치고 흐트러지고 구르고 다친 상처뿐인 얼굴에 웃음이 감돌기 시작한다.

웃음은 연기를 타고 날아가 천정에 매달려 있다.

웃음은 샨데리아불빛에 아롱진채 가닥가닥 흔들려 춤추며 노래한다.

그러다가 지치고 사그러지면 살며시 내려온다.

웃음은 결을 지켜 확인할 수 없는 초의 설움에 타 들어간다.

웃음은 살아도 살아지지 않는 야릇한 혼돈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

人間의 幸福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계속되는 일과 그 일로 인한 축복으로써 이루어 진다. 人間의 마음은 진정한 일거리를 發見했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 드는 때는 없다.

幸福하기를 바라거든 누구든 먼저 일을 시작하라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 議事堂 뜰 안의 木蓮 ◎

趙 慶 来(10期)

「木蓮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이 노래는 中学校때 유난히 얼굴이 크신 先生님한테서 배웠던지라 아직껏 잊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木蓮에 대해서 남달리 愛着을 갖게된 것은 지난 植木日때 議事堂正門으로 들어올라치면 양옆으로 쭉 木蓮이 심어진 그때 부터였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오는 동안 단 하루도 이 木蓮을 보는것을 빼놓지 않고 살펴 보았지만 내게는 그리 탐탁지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木蓮, 그것은 적어도 잎가지가 무성하여 비가 올라치면 뛰어들 수도 있고 찌는 여름이면 거적떼기를 깔고 누워서 다리를 비비꼴 수도 있는 程度의 것으로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내게 自家用車가 없었던게 퍽 多幸스럽게 여겨진다.

만일 내가 暫時도 걷지않고 車만 타고 다녔더라면 나는 木蓮과 쉽게 접할 機会를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 地位를 생각하여 中央路로도 다니지 않고 양가장자리로만 다녔던게 내가 木蓮에 대해 자세히 알게된 두가지 理由이다.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木蓮꽃 그늘 이란게, 나 혼자 들어서도 모자랄 程度의 쬐끄만 그늘이었다. 이것도 한 낮이면 제 키의 몇배나되게 늘어나서 보란듯이 뽐을 내고 또 밤이면 무서워서인지

추워서인지는 몰라도 제집을 찾아와 바로밑에 움츠리고 있는게 고작이다. 이것이 木蓮의 그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은 실망이된 듯싶었다. 대체 어디서 편지를 읽고 어디서 고향생각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였다. 몇개의 가지가 겹쳐져 나혼자만은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제법 큰 그늘이 생긴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얌전치 않게 제멋대로 人道를 지나고 잔디정원을 넘어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끓고있는 저만치의 도로 한가운데 멈추었지만 木蓮의 그늘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보잘것 없는 검은 물체였지만 나의 안식처론 괜찮다고 생각이되어 나는 얼른 다가가서 틈새주지 않았다.

순간 어디선가 「빵ー」하는 소리에 놀라 질겁을 해서 뛰어나왔던 일만을 생각해 보아도 역시 木蓮의 그늘이란게 그리 한가하지만은 않은것 같다. 얼마나 木蓮의 그늘이 그리웠으면 대낮에 차가다니는 길바닥을 주위도 살피지 않고 뛰어 들었는지는 나도 모를 일이다. 다만, 그때 내손에 누구에게선가 온 편지조각이 쥐어있지 않았던게 큰 다행으로 여겨질 뿐이다. 이게 내가 木蓮에 대해 갖는 유감이다. 그러나 나는 木蓮을 탓하지만은 않는다. 이 木蓮이란 것은 언제나 남들처럼 푸르지도않고 잎또한 손가락으로 셀정도의 적은 수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다른 나무와 같이 군더더기모양 덕지덕지 붙은 것도 없고 온통 전체가 매끈하고 사방으로 곧게뻗은 가지사이로 하늘이 훤히

뵌다는 것이다. 더우기 내가 본 木蓮은 한가지에 잎하나 꽃한 송이 정도의 수로 잎이 윗가지에 달려있으면 꽃은 아랫가지에 피어있고 꽃이 동쪽가지에 피어있으면 잎은 서쪽가지에 달려있었으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나마도 바람이 세게불라치면 꼭 종같이 생긴 커다란 꽃송이가 종을치듯 이리저리 막 뒤흔들리는 것을 보면 가련해서 못볼 지경이다. 아마 木蓮은 항시 이렇게 떨리고 부대끼기 때문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것같다.

나는 아직껏 생각해 오기를 木蓮의 그늘 밑에서는 편지도 읽을 수 있고 ,할아버지의 옛날얘기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몇아람은 됨직한 커다란 나무로 생각해왔다. 비가오는 날이면 木蓮은 그늘을 만들때의 그 큰 힘으로다가 진손의 피신처를 만들어 주어야 될텐데도 이 木蓮은 키 자랑하던 때만을 생각하는지 굵다란 눈물만을 흘리는 것은 가없기 짝이 없었다. 온통 세상천지가 하얗게 뒤덮여 다른 나무들이 보란듯이 몸치장을 하고 눈이부시게시리 슬비하게 늘어서 있건만, 유독 이 木蓮만은 눈한송이 달라붙지 않은채 꿋꿋이 서있는 것만을 보아도 얼마나 이 木蓮의 살결이 부드러운가를 나는 짐작이 간다. 햇빛이 요란한 어느날에도 이제는 먼 산의 눈마저 거의 다 녹다시피해 듬성듬성 남아 있을 때에도 이 木蓮나무의 밑에 쌓인 눈만은 녹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게 또한 이상하게 생각된다. 아마 가지사이로 수 많은 눈을 다 빠뜨려서 다른데 보다 눈이 두껍게 쌓였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만약 지금 내게 편지가 아니더라도 좋다. 단 엽서 한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나는 그냥 그위에 털썩 주저앉아 木蓮의 그늘속에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기 그지없다.

나는 이 木蓮을 꽃이피는 봄에도 보아왔고 궂은비가 자주내려 원래 매끈한 살결을 더욱 매끄럽게 해주는 여름에도 보아왔다.

낙엽이라고 할것도 없이 단 한 잎만이 남아 갖은 고생을 다하며 흔들리는 가을에도 보아왔고, 꽁꽁 얼어붙은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 木蓮이란 것은 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큼지막한 꽃을 피울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것같다. 나는 그래도 매일 싫든 좋든 木蓮을 볼 수가 있어서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木蓮을 처음보는 사람들은 어디 木蓮을 木蓮으로 알겠는가. 그저 송충이가 잎파리하나 남김없이 갉아먹어 말라죽은 나무려니 생각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木蓮에 대해 약간의 동정을 한다면 남이야 어떻게 보든지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을 뿐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모든 나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일른지도 모르겠다. 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는 동안도 오직 변치않는 이 木蓮의 그늘만은 내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따름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김 성 연 (10期)

눈이 오는 날이면, 이 답답한 도심지에서 총총히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원시 시대 그대로의 大自然에 잠든 山村으로 가보고 싶다. 쌓인 눈위에 고이 자국을 남기면서 흰 곰들이 뛰놀는지도 모를 그런 자연 속에 나를 두고 확인하고 싶다.

生活에 시달린 都心地에 사는 사람들이란 휘날리는 눈에 개의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거리에서 편편히 날리는 눈보라를 가만히 응시하는 少女가 있다면, 나는 그 少女가 限없이 좋아질 것만 같다.

눈이 오는 날이면 한사코 노래하면서 언덕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海辺을 거닐어 보고도 싶다. 태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휘날리는 눈송이를 보고 있으면 멀리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들이 되살아 오기도 한다.

눈이 오는 날이면, 아득히 멀리 떠난 님이 눈송이에 님의 소식을 전해 준다.

마음의 城

정 주 현 (10 期)

겨울이 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거북할 수 없는 하이얀 카페트 위를 걸으며 城안에서의 1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城을 생각 해 봅니다.

마음속 깊이 받아 들이지 않았던 城이 이제는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城이 되었읍니다.

엉성한 돌멩이의 城이 지금은 이끼와 풀로써 덮여 그리 보기 싫지 않은 城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새삼 城안의 얼굴을 뒤돌아 보기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허나 순간순간에 열중했던 1년간의 손짓들은 영원히 기억속에 자리 잡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읍니다.

인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은 서툴지만 항상·새로운 시도와 개성과 의욕만은 항상 꿈을 그리면서 지내던 성안이었읍니다.

그 성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백지를 채워 주는데 결코 인색한 것 같지 않읍니다.

단지 하고 싶다는 마음 만으로 뛰어 들었던 城………

지금 생각해도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그것은 城이 나에게 안겨 주었던 큰 용기인 것 같읍니다.

잠시 문학소녀로 돌아가게 만든 낙엽속의 묻힘.

새벽의 추운공기를 망각하고 피로한 눈들로 대화를 나누며 갈

이 있었던 친구들의 모습. 그 하나 하나 내게는 영원히 간직해야 될 마음의 등불들입니다.

자연앞에서의 경건함을 안겨준 안개와 비와 활짝개임속의 야유회 …………

허나 이제는 어제의 모든 흔적들이 오늘의 조수로 씻겨진 해변처럼 꾸김없이 탁 트인 마음으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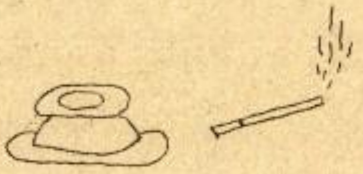
하지만 하얀카페트위의 걸음이 조금은 휘청이는 듯 합니다.

城을 떠나야 된다는 서운함의 표시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몸짓임을 생각하면서 밟입니다.

& & & & & & & & & &

자기가 택한 길이 고생스럽고 힘든다 하더라도 다른 길을 동경하지는 맙시다. 괜히 남의 길을 기웃거리다간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人生은 오직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길만을 줍니다.



"나의 인생은 한판의 바둑"

김 계 담 (6 期)

바둑은 그자체 흑과 백이 분명하듯이 승패 또한 분명'하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 본듯도하고, 혹은 듣지는 못했어도 꼭 있을것 같기도한 이 경구 같은 말을 나는 가끔 생각 해본다.

나는 바둑의 이치를 제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이 그 바둑의 이치로부터 인생의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아 크게 외치는 것 같은 만족감을 무척 부러워 한다.

나자신은 바둑을 잘두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워만 하는가 보다.

만들어 내는 일보다는 남을 뒤따르는 일에만 급급한 생활.

때로는 웃는 일을, 또 때로는 우는 일을 모방하면서 그러한 모방속에서 모방을 모방으로 자각할 때 밀어 닥치는 그 자기 혐오의 쓰디쓴 자조의 웃음을 띄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설픈 기피가 뇌리를 스쳐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둑이 마치 흑과 백이 분명하듯이 승패가 분명하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그 희고 검은 돌의 분명한 색깔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덧 눈앞에 닥쳐와 있는 알 수 없는 하루, 날마다 되풀이하여 맞는 습관으로 하여 전혀 무관심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하루가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 때문에 두려워지기도 하는 하루를 맞으면서

기사도 바둑판을 대할 때는 때로 그런 심정이 드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나의 이 두려운 하루를 풀어 가듯이 흑과 백의 분명한 윤리에 따라 바둑을 풀어가는 기사의 그 집념과 창조, 나는 그들에게서 바둑의 승패와 더불어 인생의 승패를 배우는 것이다.

승패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을 깎는 노력으로 한 알 두 알 조심스럽게 돌을 놓아 가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국면을 그르치는 기사의 절망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여 국면을 만회해 가는 몸부림은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에게는 더없는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무엇하나 만족할 만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는 가끔 나 자신이 남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까 하는 것을 나자신에게 물어 볼 때가 있다.

집안 식구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불필요한 존재는 아닌가 나의 색깔은 흑인가 백인가

그렇다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이라면 바둑판 위에서 부질없는 허수가 아닌가.

나는 정말 욕심이 너무 많다.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살아 보고도 싶고 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당당히 추월해 보고도 싶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내가 두고 있는 이 바둑판 인생의 승부

를 아직 가릴 수가 없다.

다만, 나는 승부에 모든것을 건 기사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나의 바둑알을 하나 하나 놓고 있을 뿐이다.

나의 승부는 더 오랜후에 가려지겠지만——.

바둑의 승패처럼 내 인생의 승패가 그렇게 분명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억지이고 모순이겠지만 나는 다만 그것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만족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 & & & & & & & ———

싸움을 즐기기에 우리는 싸운다.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노래한다. 이욱고 밤이 되어도 삯을 지불해 줄 주인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일한다.

우리는 남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주인들이다. 이 대지라는 포도원은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피요, 살이다.

—神의 救援者들(니코스 카잔차키스)중에서—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면!

世宝 李 泰 鎬(4期)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장독대 위를 굴뚝새가 무엇인가를 속삭이듯 날아와 앉는다. 삶에 시달린 어린 머슴아는 반쯤 감은 눈으로 뚫어지도록 쳐다 보지만 꼼짝도 않다가 조롱하듯 날아가 버린다. 금새 가느다란 꿈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깨진 것일게다. 그러나 또 날아오리라는 헛꼬단 바램 때문에 창문에 문구멍을 크게 뚫어 놓는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뭏든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보잘것없는 행불행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습게도 곡예사가 되어 온갖것들을 웃기고 울린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좀더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을 주어 모으려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지만 어차피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될 운명 앞에서 떨고 있었던 한두 번이 아니고 보면 나도 사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일게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인간이 덜된 탓일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소크라테스」나 공자 또는 예수 석가 「마호메트」등등이 걸어 온 길을 못 걸어온 촌뜨기라고 놀려도 좋다. 아직은 굴뚝새처럼 날지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기지도 못하는 굼벵이는 아니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엉뚱한 생각만 실컷 하다가 손으로 뚫어 놓은 문구멍에 살며시 눈을 대고 장독대 위의 무엇인가를 찾다가 잠이 들었나 보다. 휘황찬란한 무지개빛 아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바보 비슷한 사람이 당나귀 춤을 신나게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이 괴짜다. 눈은 하나만 달렸지만 호떡만큼이나 크고 철판 한뼘두께 뒤에 있는 것도 보일 정도다. 요즈음의 六백만불짜리 사나이의 눈보다 더 성능이 좋은 듯이 보인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입이다. 입은 강낭콩 한두 알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 작은 것을 보니 아마도 우주인들이 여행할 때 먹던 고단백질의 누룽지만을 섭취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 같다.

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챙이만 한데 개미가 괭이 메고 새마을 농장으로 가면서 부르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 보게 좋아졌네〃를 들을 만큼이나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 밖의 사회상을 다 알 수 있는 것같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허벅다리와 종아리는 모기 다리처럼 말라 있고 팔의 근육도 형편없다. 산수학적으로 논하면 가분수인 체구인데도 「고고」와 당나귀 「트위스트」는 안 추어 봐서 모르지만 기생오라비보다 더 잘 춘다는 소문 때문에 시집은 간 듯한 아낙네들이 서로 구경하려고 야단법석들이다. 그 추위에는 기자인지 「어나운서」인지는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실황중계방송인지 무엇인지를 한다고 갓통을 벗고 땀을 팥죽처럼 흘리면서 읊어댄다.

세상이 두 마디로 요지경이다. 그 괴짜가 신나게 흔들고 춤을 한판 겪은 다음 하는 말이 걸작이다. 괴짜 日—낮에는 별볼 일 없지만 밤에는 별 볼일 있는 여러분의 세계가 싫어 낮

에도 별을 볼 수 있는 21세기에 와 보니 거지도 자가용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구걸하고 애기도 진공관 속에서 발육 성장을 시키며 길바닥이 자동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구두가 무용지물이 되었단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콤퓨터로 되어 있어서 단추만 누르면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므로 손과 발을 쓸 필요가 없고 超「콤퓨터」적으로 머리만 쓰게 되어 자기처럼 기형아 형태로 진화되어 간다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역설을 한다.

옆에서 심각하게 듣고 있던 친구 한 녀석이 그러면 21세기라는 세계는 어디메쯤 있느냐고 폼을 잡으면서 묻으니까 눈을 꽉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여러분도 이십이삼년만 더 크면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한다. 그래서 야— 그러면 지금은 비록 돈 없고 괴로움과 가난하며 권력이 없지만 더 참고 견디면 거지도 자가용 타고 구걸한다는 그 나라에 가서 어깨와 목에 힘주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군 하고 두 손을 번쩍 쳐들면서 만세 삼창을 하려 하는데…… 그만, 그만……꿈이었었군.

휴우— 눈을 비비고 나서 닫어 놓은 문구멍 사이로 장독대를 다시 내다 보니 쌓였던 눈이 어느새 햇볕에 녹아 버린지가 오래였다. 그리고 굴뚝새 녀석이 다시는 오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래서 궁여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 서살며

루에 뉘엿거리는 저녁 해를 바라보면서 눈짓해 보지만 변한 것은 조금도 없구려!

다만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만이 떠 오르겠지……하는 바램으로.

〈国会議事課〉

£ £ £ £ £ £ £ £ £ £ £ £ £ £ £

성실이란 잘못된 사랑을 現実化시키며 다른 관계도 그를 자신의 본질에 맞추도록 도와주는 至高의 윤리적 과업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人間의 個個의 힘을 다발로 묶어 거대한 힘을 지녀 기적을 가능케하는 德性입니다.

성실이란 또한 희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읍니다. 한 人間에게 성실을 지키는 한 그에게는 희망이 있읍니다.

社団
法人 大韓速記協会案内

本協会는 社団法人으로 文化公報部에 등록되어 있는 速記人의 総集結體로서 年2回 速記術의 大衆普及을 위해 속기강습과, 速記人의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을 위해 速記士資格検定試験을 실시하며 会員間의 친목도모를 위해 每年 體育大会를 개최하는등 諸事業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本協会의 会員에는 名誉会員 正会員 準会員이 있으며 正会員은 本協会가 시행하는 資格検定試験에 1, 2級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養成所 同門 여러분들도 本協会에 加入하여 速記界의 발전을 위한 協会의 諸般事業에 적극적으로 参与하시기 바랍니다.

本協会의任員陣

会　長	金龍泰	(国会議員 国会運営委員長)
顧　問	李鎬賑	(国会事務総長)
〃	権孝燮	(国会議員 維政会行政室長)
〃	吉基祥	(国会事務次長)
〃	崔興俊	(国会専門委員)
〃	劉龍珪	(国会専門委員)
〃	趙琮鉉	(国会議事局長)
指道委員	姜駿遠	(姜駿遠式創案者)
〃	張基泰	(逸波式　〃　)
〃	金星漢	
〃	李東根	(東邦式創案者)
〃	金鎮基	(国会速記課長)
副会長	鄭源道	(国会資料編纂課史料担当官)
理事長	崔錫模	(国会内務委法制官)

総務・財政担当理事	金基英
〃　部　長	朴大成
渉外　担当理事	宋基喆
〃　部　長	河良培
事業　担当理事	黄寅河
〃　部　長	金亨坤
外国語　担当理事	姜宗遠
〃　部　長	金致元
研究　委員長	崔滉洙
〃　幹　事	金致元
資格審査　委員長	金秀旼
〃　幹　事	玄柄高
無任所　理　事	全海成
	鄭明吉
監　事	高太仲
	蔡康熙

(회원가입연락처　7802-2476　박 대 성)

〈日 記〉

젊은 베르테르의 日記

H . Y . S (6期)

76年 1月 9日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안감. 너무나 부푼 기대.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기다림으로 엮어질 것같은 기쁨에 찬 행복.

여기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고집쟁이 둘의 사랑이 있읍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고, 얻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만 둘은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려 합니다.

그들은 내일 만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내일 만납니다.

76年 1月 10日

어제 그는 나비장식의 은으로 된 칠보반지를 샀읍니다. 또 노란옷을 입고 빨간방울을 앞가슴에 단 아기인형 마스코트도 샀읍니다.

오늘도 그 둘은 버스에 나란히 앉았읍니다. 그는 마스코트를 전해 줬는데 그녀는 기쁘게 그걸 받았읍니다. 버스가 그가 내려야 할 곳까지 오자 그는 망설이다가 바보스럽게 이렇게 말하며 반지를 그녀에게 주었읍니다. " 바람처럼 자유스러워요"

오늘밤 이제 11日이 되었읍니다. 또 하나의 잠 못이루는 밤이다. 그제 8일 밤부터 그는 너무 긴장해 있었나 보다. 이제는 확인되었는데도 ·············· 아마 긴장이 풀렸나 보다. 그래서 그녀의 모습은 행복하게 다가왔다.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I'll understand.

그녀가 준 재털이에는 담배재를 털 수 없다. 그건 왠지 몰랐다. 공주마곡사에서 작은 다람쥐, 눈속의 요정같이 귀엽게 보였죠. 그후에 내게 재털이를 줄 때 고맙다는 생각, 나를 생각해 준다는 생각같은 것만 했었다. 감정을 너무나 억제했었다. 그녀는 그것이 나보다 덜 심했다. 얼마나 많은 불안이 그녀에게 있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꽃을 좋아한다고 했다. 장미와 수선화와 튜울립.

내가 무엇을 그녀에게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도 모른다.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또 기다려야 한다.

담배를 에누리없이 한갑째 태우나 보다. 물과 담배에 목이 마르다.

76年 1月 18日

17日 오전 11시에 전화가 왔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를 놀렸읍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질 뻔했읍니다. 노량진역에서 대방동으로, 그곳에서 수원, 수원에서 그린·존. 그는 그동안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린·촌은 벽난로 앞에서 들은 얘기를 했읍니다. 겨울의 추위는 그들을 얼리지 못했읍니다. 밤이 까맣게 내리고 달이 커다랗고 밝게 떠올라 왔을 때 그들은 버스로 서울로 돌아왔고 푸른 성에서 차를 마셨읍니다. And I love you so가 흘렀읍니다. 그곳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그녀의 집 근처에서 내려서 그는 집으로 밤의 겨울길을 행복한 느낌속에서 혼자 걸었읍니다.

그는 그녀에게 꽃과 꽃사설 시를 외워서 들려 주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장미 한송이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귀여운 모습, 깜찍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모습, 그 둘이 만나면 그들은 둘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수해지는 거죠

76年 1月 21日

밤은 깊어져서 내일이 되었다. 하루를 넘기지 않으며 그녀를 떠올리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 시를 쓰고 싶다. 또하나의 밤을 그녀와 함께 만들고 있다. 또하나의 밤을 그녀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계절의 시린 생각들이 나와 함께 누워 있다. 별이 얼어 눈이 시리다. 달이 얼어 산바람이 분다.

친구는 들어서 빈 허공같은 기운없는 웃음을 웃게 하는 얘기를 한다. 하얀공 빨간공이 우울하게 부딪치고 지루하게 시계는 지쳐서 돌고 있다.

하얗고 투명한 살갗을 가진 여자 꼬마들의 잠바를 즐겨 입는 여자 걷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 숲속을 뛰어 갈땐 안겨주고 싶은 여자.

세상에 제일 행복할 때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생각할 때다.

세상에 제일 솔직한 모습은 거짓말을 하려다 끝내는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다.

나는 나의 그녀에게 대해 불행한 모습을 생각하길 꺼립니다. 다만 행복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려 합니다. 나는 괴로운 행복을 체험하지만 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는 기쁨을 얻고 싶다.

1月 28日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갔다. 송도. 겨울의 냉빈 유원지 월도로 가는 갯벌길의 공간에서 소주를 마셨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겨울바다. 여름과 대조적인 적막 뭔가 슬픈 듯한 느낌의 풍경들. 송도의 해수욕장내에 있는 커피집에서 얘기를 했다.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좋아한다고 표현하길 좋아한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귀여운 2칸의 협궤열차를 타고 서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염전 사이를 달리고 2시간 동안 산속과 들을 달려 수원역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고 막차인 선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의 약을 사다 손으로 녹여서 주었다.

1月 30日

그는 그녀에게 사기로 된 붕어 강아지 칠면조 닭 거북이를 주었다. 저녁에 그녀를 집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세상에 둘도 없이 작은 요정같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 그리고 그녀의 옆얼굴에 가볍게 그의 마른 입술로 키스를 하고 싶다. 그녀의 눈. 그녀의 웃음. 그녀의 머리칼. 그녀의 사랑. 그녀의 마음. 그녀의 나. Love is the message, Love is the answer , love is you.

나의 삶의 한 귀퉁이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나에게 묻지말라. 묻는 당신은 이미 누구의 것인지 알 것이다. 그 삶의 모두가 내것이 아닐 때 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을 그녀에게 주고 싶다.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고 싶다.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볼때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내일은 2月 2日, 2시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 전 선 에 서 >

강 수 헌 (8期)

여기 전선에서
한 마음이 가난한 시인이 있읍니다.
때로 이 시인은
북녘을 바라보며
白凡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하고 있을

무릎까지 쌓인 흰 눈을 치우면서
東柱를 생각 합니다.
이 눈처럼 이 시인에게도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한답니다.

두고온 부모형제와 친우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충실한 하루를
좀 더 사랑하는 하루를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내 전

우와 이 분들에게 베풀기를 기원
하면서

하루에 한번은
아름다운 찬양을 창조주에게 드리면서
내일에는 은혜로운 평화를 희망하는
대한의 어느 시인이 오늘도
이곳 선선을 지키고 있읍니다.

* * * * * * * * * * * *
百日紅의 来歷
* * * * * * * * * * * *

김 재 성 (9期)

세치 혀를 깨물고
붉은 피 토해내며
죽어간 女人의 마음은
낭군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컸으리련만

어찌하여 죽어서도
사랑하는 낭군을 위해
한송이 조그만 꽃이 되어
서러운 미소만 남기었나

토담밑 화단속엔
담홍색 편지만이
낭군의 손길을 기다리며
붉은 잎을 흔들면서
百日生涯를 마치고 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낭군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
무덤위에 엎디어
슬픈 눈동자 위에
가련히 누워있는 女人이여!

<第4回 定期総会 消息>

지난 해 9月4日 행주산성에서 60名의 会員이 모인 가운데 会務報告 財政報告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가 있었으며 이어 78年度 本 同門会를 이끌어 나갈 第4代 会長団을 選出하였다.

특히 처음부터 이 자리를 지켜주시던 金鎮基顧問과 여러 養成所講師님께서 끝까지 같이 하여주셔서 総会를 더욱 빛내주셨으며 유례없이 화창한 날씨는 그날의 모임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総会를 마친 후 柳承寬会員의 재치있는 사회로 즐거운 게임과 놀이속에 흥겨운 하루를 보내고 오후 5時쯤 아쉬움을 남긴 채 재회를 기약했다.

순간의 만남에서

장 순 임 (9期)

벗이여!

천만가지 言語가 필요없읍니다.

　　네마음은 내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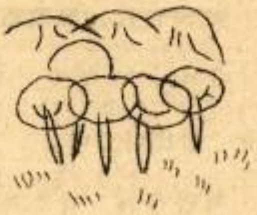
　　내눈은 너의 눈

뜨거운 시선의 교차로에서 生命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웁시다.

빗방울이 흩어져 보이듯

　　우린 만났읍니다.



영겁을 동행하는 것도 아닌

　　순간의 만남에서

눈보라가 흩어져도 아지랑이가 되어도

　　우리의 만남은 이별할 줄 모릅니다.

영겁을 동행하는 것도 아닌

　　순간의 만남에서

우리의 포옹은

　　영원을 약속합니다.

* 앙 케 이 트 *

< 設 問 >

1. 출생후 가장 기뻤던 일을
2. 생애를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은
3. 지금까지 받은 선물중 잊혀지지 않는 것은
4. 무오년 첫 아침에 무슨 생각을
5. 전국 속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6. 사랑의 묘약은 무엇일까요
7. 기타 하고 싶은 말은

* 구 관 모 (1기)

1. 나의 또 하나의 분신이 탄생했을때
2. 서울시의 인구 및 교통의 원만한 소통
3. 고교 졸업시 불러내 형님께서 술 세례를 퍼 붓던일
4. 내 아기의 건강한 가운데의 성장과 축복
5. 모든 것은 첫 걸음부터
6. 눈물
7. 1기생 벗들에게 지난해 못다한 마음과 몸의 정을 새해에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최선을 다하련다.

* 오 순 근 (2기)

1. 장가갔던 일

2. 修身斉家治国平天下

3. 맏 상주보았을 때

4. 쉬지 말고 뛰자

5. 速記外의 것을 개발해 봅시다.

6. 진실

7.

* 장 희 진 (3기)

1. 순백의 드레스와 부케가 하모니를 이루던 순간

2. 내조

3. 동시집 " 구름은 흘러도" — 국민학교시절 풍만한 감동과 욕망을 유발한 오빠의 선물

4. 건강의 해가 되길

5. 긍지와 자부로 보다 굳건한 반석을 구축하길

6. 관용과 이해

7. 잠깐이다. 아파할 것 없다.

늦추며 늦추며 순리대로 자연대로 사는 철학을 익힌다.

* 박 정 호 (3기)

1. 내손으로 산 복권이 100원짜리에 당첨된 일

2. 망치를 한번 쳐 보고 싶다.

3. 1月1日 일직청령

4. 어제저녁 먹은 술로 골이 패인다.

5. 속기인끼리는 팔세알자

6. 아낌없는 투자

7. 이상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다.

* 황 영 순 (6기)

1. 글쎄요? 그게 뭐였드라. 한가지를 꼭 집을 수가 없네요

2. 뭐 거창하게 생애를 바친다는 것보담두요 그냥 산뜻하게 아름답게 생을 누리다가 가겠어요

3. Scott Integnated Amplifiers

나에게는 과분한 선물이었지요 값도 고가이지만 주신 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꿈속에서도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실제로 갖게 됐을 때의 기쁨 아시겠지요? 지금은 재산목록 제1호에요)

4. 건강하게 이 한해를 지낼 수 있기를
내가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해낼 수 있기를 기원했읍니다.

5. 78년에는 전진! 전진! 또 전진만을 …… 화이팅!!!

6. 역시 사랑이죠

7. 죽음이 좋다면 어이 신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삶이 나쁘다면 어이 신들은 오래 살까요

사랑이 무상하다면 어이 신들은 그대로 사랑을 할까요
사랑이 모두라면 사람들은 사랑을 제쳐놓고 무엇을 하나요.

* 조 정 구 (6기)

1. 국회속기사양성소 동문회가 탄생하였을 때

2. 국회속기사양성소 동문회 회장

3. 동문회 선배, 동료, 후배들이여,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선물을 ....

4. 늦잠 좀 자도 되겠군.

5. 선배여! 후배를 아끼고 위합시다.
후배여! 선배를 존경하고 모방하지 맙시다.

6. 단기적 : 유혹 → 거짓말 → 공갈 → 협박 ....?
장기적 : 진실 → 인내 → 박력 → 끈기 ....!

7. 동문회여, 너,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이어라!

* 박 기 만 (7기)

1. 없는게 기쁜것 같다.

2. 진짜 진실한 남자가 되는것.

3. 내 주제에 선물은 무슨 ....

4. 오늘은 술을 먹을까? 말까? ....

5. 개소리는 멍멍이니까 돈이나 벌자.

6. 심심하다는 것.

7. 개성 (犬性) 을 가지고 My way.

* 이 병 억 (7기)

1. 국민학교 입학식 때 선생님이 내이름을 불렀을 때.

2. 부모님 생전에 결혼하는 일

3. 내 백일잔치때 고모가 세발자선거 사다가 주신것

4. 대망의 무오년은 나 제대하는 해

5. 누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그대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가를 생각하거라.

6.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약. 왜냐면 눈물은 슬픔이니까

7.

* 손 재 옥 (6기)

1. 축기사가 되었을 때

2. 21세기 축기의 대가

3. 「병신과 머저리」라는 책

4. 아! 무오년 첫날 아침이구나

5. 세종대왕한테 사과의 편지를 쓰도록

6. 글쎄요. 내 전공이 의학이 아니라서 ……………

7. 난 「기타」字만 보면 키타 생각이 나.

* 박 치 명 (7기)

1.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때.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3. 74년 크리스마스선물 (반지와 책)
4. 아! 한살 더 먹는구나
5. 글쎄요. …………
6. 이해와 노력
7.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원고를 더 많이 실어 보다 알차고 충실한 회지가 됐으면 ……………

* 임 창 길 (7기)

1. 금년엔 꼭 기쁜일을 만들어야지.
2. 오로지 공키질 (?) 만 ………………
3. L에게 받은 손바닥만한 작은 책 — "말테의 수기"
4. 내가 백말띠이니까 하얀 준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던 나폴레옹처럼 태산준령을 넘는 생각을 …………
5. 글쎄요. 소인이 어찌
6. Hot dog (연인끼리 즐겨 먹으니까)
7. 재야인사 (?) 들에게도 등용의 길을 달라!

* 김 미 원 (8기)

1. 고3 졸업식때 교육감상을 받았을 때

2. 나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것.

3. X — mas 선물 (빵과자)

4. 그저 즐겁다는 생각밖에는

5. 신실된 기록은 역사의 산 유산이다.

6. 성의를 다하는 신실된 마음.

7. 농문회에 무한한 발전 있기를 …………

* 김 진 태 (8기)

1. 우리의 캠퍼스 (?) 에서 거닐던 …………

2. 기둥이 25개인 집을 져야지 (국회의사당 보다 크게)

3. 자기가 " I love you" 할때

4. Keeq on running !

5.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총총.

6. 뜸을 들여야 하는데 속기사님들은 곤란한데

7. 프로속기사와 아마추어속기인의 대화의 광장을 …………

* 이 연 희 (8기)

1. I feel love .

2. 이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이라면.

3. 여고생때 생일선물로 받은 신부용 잠옷

4. 오늘아침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줄 알았는데 …………

5. 자기세계를 가지십시요.

6. 자기별을 찾아 헤매는 사막의 캬라반

7.

* 김 주 성 (8기)

1. 여드름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갔을 때

2. 피부과 의사 (여드름 담당)

3. 여드름 특효약

4. 대한여드름협회를 구상

5.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바랍니다.

6. (이마에 난 여드름+뺨에 난 여드름) X애정÷세월

7."여드름은 청춘의 심볼"

* 박 미 향 (8기)

1. 엄마젖을 빨 때의 그 만족감이 …………

2. 교육에의 봉사

3. 어느날 갑자기 온 꽃편지

4. 무오년 마지막날밤엔 무슨 생각을 …………

5. 우리 서로 친구가 되자!

6. 다 알면서 뭘 그걸 …………

7. 작은 일에나마 협조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 김 혜 석 (8기)

1. 「지리산 노고단 정복」이 기라면 기랄까 아니라면 아니랄까
2. 유익한 인간으로의 일이라면 그 무엇이나
3. 받자마자 잃어버렸던 모씨의 수필(우에 읽은 그책의 내게 준 흥분과 의미는 너무나도 컸었다.)
4. 23세라면 결혼적령기 아닌가!?
5. 속기인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속기 이외의 것으로 돌리라.
6. 남 몰래 흘리는 눈물
7. 막내로서의 내가 무얼 ……… 내년쯤에나 얘기하고 싶을까?

** 김 재 성 (9기)

1. 나의 몸에 붙을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
2. 영화평론
3.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사람의 마음
4. 친구와 장기두며 2년간 밥먹고 올해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5. 속기학의 4대 지론
   ① 속기의 습관화
   ② 행동의 신속화
   ③ 청각의 정확화
   ④ 완전 번문화

6. 아이스크림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7. 사랑을 하는 이유: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인간은 사랑을 한다.

— Riborio Kim —

〈同門会沿革〉

◎ 1974.12.14

国会(太平路)第2別館 速記士養成所에서 45名의 会員이 参席한 가운데 創立総会開催

◎ 1975. 9.14

45名의 会員이 参席한 가운데 野遊会実施

◎ 1975.12.26

汝矣島 新築 国会議事堂에서 会員34名이 参席한 가운데 第2次 定期総会開催 事業,財政,監査報告에 이어 会長에 盧熙男 副会長에 李承哲,金彩栄会員을 各各 選出

◎ 1976. 1. 7

回報1号 発行(103部 発送)

◎ 1976. 2.13

同門会誌 「円周」発刊 8期生卒業記念品 伝達

◎ 1976. 9. 4

懿仁陵에서 野遊会 実施

◎ 1976.12.18

国会公務員研修院에서 第3回 定期総会 任員選出 会長 河良培 副会長 金京中,金銀珠 会員41名 参席

◎ 1976.12.20

会長団으로부터 総務 朴順必,渉外 鄭大吉,財政 朴潤香을 任

命 任員会議를 開催코 顧問으로 鄭東祐(所長) 金鎮基(副所長) 鄧源道(教務主任) 推戴

○ 1977. 2

円周第2号 外部会員64部 発送

○ 1977. 4.25

速記協会 體育大会에 蹴球볼증정

○ 1977. 9. 4

第4回 定期総会 場所는 행주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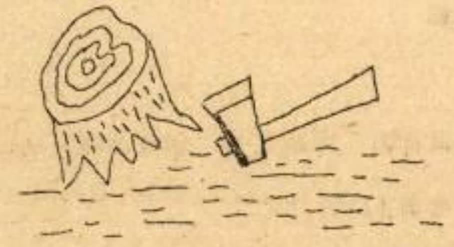
会員60여명参席 会長 朴淳琇 副会長 金銅洙 金学順会員을 選出

○ 1977. 9.14

会長団은 総務 李承哲 渉外 權寧燦 財政 崔吉柱 監事 金京中. 金銀珠会員을 選定

○ 1978. 1.13

回報 150部 発行. 外部 80部 発送.



会 員 名 単

— 1 기 —

고융번	김치원	박대성	최성주	현병고
하양배	윤옥희	이영열	구관모	이건식
황우인	홍재승	정계영	구순자	강원선
김용수	김혜경	조동호	이일금	이상호
신연화	이환범	이영자	이규헌	이용민
이옥향	한광병	지장선	함춘수	

— 2 기 —

김형곤	오춘근	홍순관	노희남	이현희
고석광	송혜경	김명식	구순화	김영채
최종귀	이진순	정하선	홍기윤	유익상
양순회	김복례	이유경	김기영	이호신
서귀석	김미경	김정윤	유명진	임원식
황규원	김성애	김성자	오세인	김태연
김길수				

— 3 기 —

이세철	한상구	김성중	박정호	안희영
차공순	김선옥	김채영	장희진	김성해

박순필	조영창	신천교	임명심	이순애
나석균	김영해	김광섭	이순무	김수곤
이창구	이영주	고구환	최정해	김현호
마혜영	박창학	이영숙	김영호	김종봉
오분희	신건숙	김창섭	노천용	김경원

— 4 기 —

이승철	유승관	최예숙	김은주	김은숙
김동수	김상기	이영애	차낙호	이정숙
김성자	이태호	한성희	정혜심	김경수
박용천	김택주	유명애	이주성	김성래
윤수호	안진석	조운진	서순덕	김정애
이정규	남영희	이보영	권오규	홍문식

— 5 기 —

정대길	권영찬	이미해	김금와	우종애
이승곤	이순구	장두순	안영미	이돈석
윤필로	정태권	김종덕	이근복	박옥경
김성규	조헌심	허 창	김규순	최정숙
성낙희	문우균	이용춘	박왕규	박정희
김달명	문병선	오중택	정대천	강부용
윤호신	심재성	이선희	이한구	홍순범

조영희	백정미	박순동	홍백화	송봉근
민영탁				

— 6기 —

홍기표	조정구	김종철	김재학	손재옥
김학순	김난희	안순희	이인화	안재길
변수만	황영순	현영연	윤혜란	백옥선
김귀순	박혜순	고영란	송교성	최말녀
박정기	최수홍	김창균	오세화	김향숙
강성신	권영화	이창순	박원철	장정호
장정희	정인념	신경자	박종희	한신규
김주철	박봉서	박용탁	박홍수	박희영
송인섭	염복진	이재구	이수성	이상근
이상래	이인철	이경숙	유영순	김세담
홍옥표	노관옥	박송만	김영순	유혜선

— 7기 —

박기안	이주성	박치명	최길주	김광복
김정숙	최경훈	이희자	조창건	최승철
표선안	이정숙	노태희	유연호	박종남
고정남	이형근	최경옥	임창길	김영례
조선자	김용무	서영수	이의실	윤정원

유성수	최호성	정홍호	신현숙	유병희
이봉대	강신훈	이병억	권 혁	박범순
김문기				

— 8기 —

강수헌	김주성	윤희억	김화자	박미향
박영수	김미애	김명수	김미원	김신태
김춘천	김주익	김혜석	박경석	박명옥
박영혜	박종범	서영희	오광홍	이기배
이양실	이연희	이장호	이혜자	전구호
전농수	정덕훈	정재영	차재영	황 휘
이희승	문용욱	조영인	김경희	김정덕
박옥희	엄명덕	오광홍		

— 9기 —

서승범	정상철	김현수	노운경	이순희
이시년	지화일	우정순	고영원	박인혜
선남영	이소정	윤상운	조영기	이정희
이화련	정보영	심순옥	오농범	윤용우
이영화	김재성	이승희	오성원	서주철
유영호	장순임	김원본	최관봉	김희자

— 10기 —

조경래	조신자	김양실	이일선	김병민
김종원	심경택	선이제	박미섭	이순임
이인숙	김인수	이순영	김태호	안옥승
최홍근	정주현	김성연	김대수	박경순
김영자	조미영	신건현	최형일	유회연
이경아	이준근	박수일	조화연	

— 명예회원 —

김창진	전재곤	정명순	이경식

編輯後記

* 흩어진 片鱗을 숫어 모아 허물어지잖는 城을 쌓기 위해 하많은 歲月이 흘러갔나 새삼스레 되돌아 보며, 이제 머잖아 10期生이 배출되고 11期生을 맞아들이게 되었으니 정녕 가는 歲月이런가 생각하면서 ······················

여기 우리들의 숨결이 깃든 조각의 무리속에서 한웅큼 들어내어 만든 円周 第3号를 내놓는다.

** 参与없는 実存이 있을까 懷疑해 보며, 귀중한 玉稿를 보내주신 会員 여러분과 그외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紙面関係로 싣지 못한 作品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円周人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幸福과 栄光이 가득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鋼 〉

円 周〈第3号〉

1978年 2月14日 発行

発行人 朴 順 必

編輯人 金 鋼 洙

国会速記士養成所同門会

서울特別市永登浦区汝矣島洞1番地

Tel 7802-2471 ~ 2476

速 記 業 務 (案 內)

從來의 여러가지 制約으로 수요자 여러분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못했던 속기업무를 금번 본회에서 이를 대폭적으로 개편 단일화 함으로써 신속 정확의 원칙 아래 다음의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속기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1. 各種総会의 速記録作成
2. 座談会 懇談会 및 세미나
3. 公判速記와 録音테입 再生
4. 著述速記 및 其他 記録業務 一切

東邦速記事務所 (21)4266

學 院 案 內

* 創立 30週年!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 私設養成所

△ 大韓速記協会 指定養成機関

한글速記科	英文速記科
1. 本 科……… 4個月	1. 本 科…… 3個月
1. 研修科……… 1 年	1. 研 修…… 6個月
1. 資 格……… 高卒以上	1. 資 格…… 高卒以上

修 了 後

国会,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関, 各軍速記兵, 外国人商社, 留学時의 筆記 및 알바이트等 高級就職으로 社会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21)4266

안녕하십니까?

成長하는 国際社会속에서 韓国을 찾는 外国人 바이어들과 韓国企業間의 좀더 원활한 意思疎通 및 콤뮤니케이숀을 도모하고자 신속.정확한 Language Service 및 Secretarial Service를 本학원 並設로 시작했읍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및 무역관계 회의 등 모든 분야의 国際的인 사업에 필요한 通訳士, 速記士, 타이피스트 案内員등 用役서비스도 함께 並行해서 일할 자세에 임해 있읍니다.

서비스는 업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1. 貿易会社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통역, 번역, 외국어 편지쓰기 대행
1. 外国人 바이어들을 위한 서비스
   통역, 가이드, 속기, 타이핑, 임시비서업무
1. 国際会議 用役서비스
   동시통역사, 속기사, 타자수, 안내원등
1. 수준급 비서 알선

스타서비스

學院案內

한글速記科
1. 本 科……… 3個月
1. 研修科……… 9個月
1. 資 格……… 高卒以上
◎전담: 金天演 創案者 직강

英文速記科
1. 本 科…… 2個月
1. 研 修…… 4個月
1. 資 格:…… 高卒以上
◎전담: 盧英民院長 직강

官認 新世界速記學院 (22)3330
(市警뒤 해남빌딩 옆 20m)